백두-한나

주체112(2023) 10
http://www.paekdu-hanna.com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鮮人总联合会

백두 - 한나

주체112(2023) NO.344





제품질제고에 힘을 넣고 있는
룡흥제약공장
안궁우황환
安宮牛黃丸
전통비방이 살아있습니다
명약중의 명약 안궁우황환
옛날부터 명약으로 일러오던 안궁우황환은 우황, 사향, 황련, 룡뇌 등 진귀한 약재들로 제조하여 뇌출혈, 뇌혈전, 뇌전색, 류행성뇌척수막염, 중독성뇌염, 중독성적리, 노독증 등에 효과적이다.
전통비방
룡흥제약공장
제품질제고
룡흥제약공장에서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h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백두 - 한나
PAEKDU·HANNA

앞표지:

안국사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연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동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동지!

방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도 완강한 투쟁으로 이룩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자주,자립,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전진과 력동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우리의 공화국창건 7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해로 됩니다.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올해에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데 대하여 호소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당과 혁명의 부름에 언제나 애국충성으로 화답해온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정치문화행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총궐기해나섬으로써 경제건설의 각 분야에서 뚜렷한 장성추이를 보이고있습니다.

극심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는 농업발전의 놀라운 현실과 날마다 몰라보게 일떠서는 새 거리,새 살림집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적인 변화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는 밝은 전망을 기약해주고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룩한 성과중에 가장 큰 성과는 나라의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것입니다.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을 만방에 과시하고 적대세력들을 불가극복의 위협과 공포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전략적힘, 핵전쟁억제력은 지난 년대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비상히 다져지고 끊임없이 강화되여가고있습니다.

강력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철저히 갖춘 공화국의 위력적실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담력과 결행력이 어떤것인가를 명명백백히 증빙하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결실이고 빛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이번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75년에 걸치는 존엄높은 자기의 주권활동사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의의깊고 사변적인 정치적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국가관리와 경제발전, 인민적시책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의 채택과 함께 나라의 헌법에 새시대 우리 국력의 실상을 반영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으로 하여 본 회기는 공화국의 헌정사에 괄목할 페지를 새긴 력사적인 회의로 기록되게 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로 1년전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핵무력정책을 엄숙히 법화한 이 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로써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력사적, 정치적과제가 빛나게 달성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직 자존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와 의지가 전체 인민의 신념으로 굳건한 국가, 실제로 세대를 잇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전대미문의 투쟁으로 핵보유의 대업을 성취하고 그것을 자주와 정의, 발전의 가장 귀중한 절대적힘으로 틀어쥔 정부와 인민만이 이러한 기적을 탄생시킬수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하고 신성한 투쟁의 전취물을 헌법으로 고착시키는 대단히 중대하고 의의있는 국정토의에서 자기의 결의권을 가장 책임적으로 행사하여준 대의원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법적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힌 정치헌장입니다.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정책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가장 위험한 전쟁국가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였고 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한데 대하여서는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패권열망과 팽창주의적환상실현에 광분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범위에서 《신랭전》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립증해주고있습니다.

만일 우리 공화국이 계속 가중되여온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앞에서 남들의 핵우산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앉아있었거나 제국주의자들이 극성스레 광고하는 알량한 《선의》와 화려한 유혹에 환상을 가지고 핵보유로선을 결단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리고 출발을 뗀 간고한 길에서 멈춰서거나 후퇴하였더라면 기필코 오래전에 핵참화와 절멸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것이며 적들의 횡포무도한 도전과 압박에 단호히 대

응하면서 국가의 존위와 위력을 선양하고 세계의 정의를 선도하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국가의 물리적제거를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쟁까지 강요했던 미국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정권종말》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각본을 부단히 개악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모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 그루빠》를 가동시킨데 기초하여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대규모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본,《대한민국》과의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였으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입니다.

랭전식사고방식에 쩌들대로 쩌든 미국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날 전략적억제력의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고 더욱 철저히 제압하고 관리하면서 조선반도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화국정부가 단순히 림박한 정세악화의 추이만을 분석고찰하고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라는 중대의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킨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한,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판단입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 행성에 핵무기가 출현하고 첫 핵참화가 일어난 때로부터 인류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소망하였으며 우리 공화국도 1950년의 조선전쟁때부터 시작된 핵공갈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거듭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단지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는 리유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제안들을 모두 무시하고 비핵국가인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장장 수십년간 지속해 가증시켜왔으며 이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막대한 장애와 엄중한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지어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운 비상국면에 직면한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대세력의 핵위협에는 반드시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철리와 함께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여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강화하고 누구도,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데 이어 헌법에까지 당당히 명기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자위적인 국가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의 전위를 개척한데 대하여 응당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이 력사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현 단계의 투쟁강령실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잠시도 멈춤없이 추진시켜야 할 중대과제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 단계에서의 우리 당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서 그에 립각하여 대외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당중앙의 대외전략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폭넓고 전망성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

위에서 혁명적원칙,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련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을 더 잘 보장하고 나라의 중요경제사업들을 안정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부문법들도 심의채택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한것은 귀중한 성과로 되지만 더우기 중요한것은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가 철저히 관철되여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전진비약이 이룩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로 향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내세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투쟁은 오늘 중대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건국이래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국난이 겹쌓인 속에서도 과감한 계속전진의 기세로 쟁취한 기적적인 승리와 성과들이 더 큰 승리와 성과로 이어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이제부터의 2년 남짓한 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포치한 계획과 당면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고 훌륭한 실체로 전환시키는데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비롯한 경제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여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제일 절박한 과제로 나섭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은 나라의 경제전반과 해당 지역의 경제사업실태를 말끔히 장악하고 변천하는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도를 보다 치밀하고 박력있게 하여 당과 국가가 결정한 경제발전목표와 과업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달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맡은 경제부문들에서 공화국력사에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투쟁기풍으로 새로운 생산적앙양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전반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농업부문이 더욱 과감히 분기하고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부단히 증대시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하루빨리 위대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최우선,절대시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계속 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농촌건설을 통이 크게,힘있게 내밀고 당의 육아보육정책,경공업정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며 국토의 면모와 생태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으로부터 반드시 결실을 안아와야 할 중요과업들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국격과 국위가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과학과 교육,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부문에서 뚜렷하고도 결정적인 개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결정한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과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고 나라의 교육구조,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질적으로 개선하며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발양되도록 전반적인 보건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과 출판보도,체육부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발전상,우리 인민의 애국열의와 혁명적기상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자랑찬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온 사회에 훌륭한 공산주의적국풍을 수립하며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창조방식,혁명적인 사업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투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당적,행정적,법적으로 이를 위한 투쟁의 도수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지만 최근

국가적인 재해방지사업에서 대단히 엄중한 결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것만 보아도 의연히 국가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 무질서,무책임성,무관심성을 비롯한 폐단들이 고질적으로 내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줍니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기관,기업소,공민들이 높은 정치의식,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에 복종하며 나라의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갖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현상을 억제하도록 통일적이며 강도높은 통제와 투쟁을 계속 드세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격동적인 년대들에 발휘되였던 혁명적인 대중운동,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의 고귀한 전통이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하여 이것이 우리 시대는 물론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되게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분야,모든 단위가 국가의 근본리익,전망적리익을 앞에 놓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합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인민의 대표들인 대의원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는것이 비할바없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실지 남달리 높은 애국심,애민정신을 체질화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의 리익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나갈것을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인민이 믿고 선출한 최고대표라는 이 성스러운 부름에 국가와 인민의 얼마나 크나큰 신임과 무게가 실려있는가를 항상 뼈저리게 자각하고 실지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책임에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인민을 량심으로, 신념으로, 심장으로 받들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민의 진정한 대표이고 참된 대의원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우리 로동당의 손길아래 인민의 대표,최고주권기관의 대표라는 영예와 존엄을 지닌것만큼 조선로동당의 모든 정책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 당, 자기 국가, 자기 인민을 위하여 한가지라도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할 일념에 항상 충만되여있어야 하며 온넋과 혼심을 깡그리 바치는 헌신분투로써 실천적인 성과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세계만방에 국위와 국력, 국광을 유감없이 떨치고있는 오늘의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충의지심을 다해 가장 열렬하게, 가장 견결하게, 가장 뜨겁게 받드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 참된 충복이 된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고 보람인가를 모두다 다시금 심장속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새로운 신심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23년을 마감지을 시각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앞에는 벅찬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올해의 마감까지 더 알찬 성과로써 떳떳이 마무리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정치적, 물질기술적조건과 토대가 확고하며 핵무력건설에 관한 든든한 법적담보까지 마련한 현재의 유리한 정세하에서 그 실천적성과의 여부는 여기 모인 대의원동지들과 모든 공민들이 어떻게 분투하고 노력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더없이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사명과 직책상임무를 충실히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위상을 다시금 긍지로이 체감하게 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모두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총분기함으로써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끝)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덴꼬동지와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외무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며 동지적우애의 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뿌찐동지와 형제적인 로씨야인민들에게 보내는 우리 당과 정부,인민들의 정깊은 인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9월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력사에 괄목할 자욱을 새기며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이루어진 뿌찐동지와의 상봉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고 그 위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강대한 국가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피력하시였다.

담화에서는 조로 두 나라가 굳건한 정치적 및 전략적신뢰관계에 토대하여 복잡다단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련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는것을 비롯하여 호상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친선의 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끝)

기어이 찾아 내신 노래

혁명적인 노래는 그 어느 나라의 작품이든지 국경을 넘어서라도 사랑을 받으며 불리워 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시절에 중국의 애국가요<소무가>를 배우시였으며 항일전의 나날에 이 노래를 많이 부르시였다.

노래의 원명은 <소무목양>이다.

소무는 기원전 2세기 한나라의 충신으로 명망이 높았던 실제인물이였다.

한나라왕의 사신으로 북쪽의 흉노족들에게로 갔었는데 흉노족들은 그를 인질로 잡아 놓고 저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양이 세끼를 낳을 때까지는 돌아 가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소무는 19년간이나 흉노족들속에 갇히워 있었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소무가>는 중국인민의 애국주의적사상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소무가>를 가지고 중국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 일으키시였던 체험이 얼마나 강렬하였던지 광복후 이 노래의 가사를 찾으시려고 여러 모로 애를 쓰시였다.

그러던중 80고령이 다 되신 이때에 와서야 중국말원문으로 된 가사를 찾으실수 있었던것이다.

소무목양(苏武牧羊)

소무는 호지에 잡혀있어도
절개를 욕되게 하지않았네
눈과 얼음 덮인 흉노땅에서 19년
목 마르면 눈을 먹고
배 고프면 요털을 삼키며
북해변에서 양을 몰았네
마음은 한나라에 가 있으나
늙도록 몸은 돌아가지 못했네
모진 고생 겪을수록
마음은 철석으로 굳어져
변강의 밤 때 피리소리 들으면
가슴은 아프고 쓰리였네

소무는 호지에 잡혀있어도
절개를 욕되게 하지않았네
어느덧 북풍은 불어
기러기떼 한 나라로 날아 가건만
백발의 어머니 아들이 돌아 오길 기다리고
꽃나이 안해는 홀로 빈방을 기키네
삼경이면 다 함께 꿈을 꾸련만
누가 누구의 꿈을 꾸었는가
바다가 마르고 돌이 썩는다 해도
큰 절개는 조금도 굽히지 않아
흉노들도 놀라서 그 위덕에 탄복하였네

노래가사를 찾아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감개무량함을 금치못하시며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추억 깊은 <소무가>를 부르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그때 너무도 기쁜 나머지 80고령이라는 것도 잊고 <소무가>를 불렀다.>

한곡의 노래도 자신의 청춘시절, 혁명투쟁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는 하많은 사연을 담고 있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크나큰 기쁨과 감회를 안으시고 노래를 부르시였던것이다.

일군들은 북받혀 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어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눈굽을 적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의 혁명투사들과 함께 어려운 공동투쟁의 길을 개척하던 나날들이 그리워질 때마다 풍금으로 이 노래를 종종 타보군 하시였다.

참으로 중국노래 <소무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애창하시여 더 뜻깊은 명곡으로 되였다.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당창건 78돐을 맞으며 좌담회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8 돐에 즈음하여 총련합회 본부회의실에서 좌담회가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동지와 본부일군들, 청년협회 한성옥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78 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조국땅우에 백두산대국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리였다.

참가자들은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여 우리 공화국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여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영웅의 나라로 그 위용을 떨쳤으며 가장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온 세계에 찬연히 빛을 뿌리게되였다고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조국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시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도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고 칭송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나라의 존엄과 지위, 종합적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되였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이며 조국인민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찬란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피력하면서 최강의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여 주체조선의 자주권과 강성번영을 담보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재중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과 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의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8 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8 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10 월 10 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8 돐에 즈음하여 10 월 10 일 중국 길림 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길림시지부, 중국항일무장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해원세수출입무역유한공사 류홍 명의로,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 태양상초상화에 중남지구협회명의로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한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일군들과 심양시지부 일군들은 심양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신 절세위인들의 영상작품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명의로, 리순남부의장을 비롯한 경제인련합회 성원들, 한성옥회장을 비롯한 청년협회 회원들, 주계숙지부장을 비롯한 단동시 공민들은 단동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3 돐에 즈음하여
지원군렬사들에게 경의 표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3돐에 즈음하여 10 월 25 일 심양시 항미원조렬사릉원을 찾아 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경의식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일군들과 심양시의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거연히 서있는 렬사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고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인민군과 함께 강도 미제를 물리친 영용한 지원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명의로 진정된 화환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에게!》라는 글발





지원군 장병들의 불멸의 공적과 영웅적위훈을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함께 싸운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조중친선관계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력사적사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 이어나갈것이라고 마음들을 다지였다.

이날 리순남부의장을 비롯한 단동시공민들도 단동에 있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단동시 항미원조기념탑에 화환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참가자들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이 씌여져 있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렬사릉원에 안치되여 있는 황계광, 양근사, 구소운 등 영웅렬사들을 비롯한 지원군렬사들의 묘를 숭엄한 분위기속에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계속하여 참가자들은 렬사기념관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조선전선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가렬처절한 전투장들마다에서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족쳤으며 귀중한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고 피력하였다.





들고 우리 조국의 산과 고지마다에서 귀중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중국인민지원군용사들의 무비의 희생과 영웅적투쟁정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였다.

참가자들은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심혼을 바쳐 마련하시고 혁명선렬들이 그 력사를 피로써 새긴 조중친선을 변함없는 혁명적의리로 지키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조중 두 나라는 굳게 단결하여 조선전쟁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였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으며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공동의 투쟁속에서 희생적으로 싸운 중국인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응원단 항주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활약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에서는 중국 항주에서 열린 제 19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결승전에 들어선 조국의 녀자축구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리순남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25 명의 응원단을 조직하여 파견하였다.

응원단은 10 월 5 일부터 8 일까지의 일정으로 녀자축구결승경기에 참가한 조국선수들을 힘있게 응원하였다.

전체 성원들은 경기장에서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우리의 노래와 률동으로 공화국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떨치였다.

조국의 녀자축구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위력으로 주체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관람자들로부터 힘찬 응원과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국선수들의 담찬 모습은 우리 재중동포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을뿐만 아니라 경기장안의 모든 관람자들에게 용맹한 조선사람의 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경기가 끝난 후 응원단 전체성원들은 조국녀자축구선수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였다.



리순남단장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우리의 미덥고 자랑스러운 조국의 녀자축구선수단에 축하와 고무격려의 마음이 담긴 축하편지와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항주응원단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성과 일치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응원단성원들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응원단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중국인민들의 모습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의 높은 대외적권위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전체 응원단성원들은 조국체육선수들의 높은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애족애국운동과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하나로 모아 재중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갈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응원단성원들은 항주시 유명한 **乌镇**도 유람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응원단성원들의 반향

우리 선수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



단원 주계숙

저는 이번에 우리 단동시지부를 책임지고 제 19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해외동포응원단의 한 성원으로 가게 되여 설레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경기장에 펼쳐졌던 우리 조국의 응원단성원들뿐 아니라 중국의 관람자들의 조선축구팀에 대한 열렬한 응원장면은 그야말로 황홀한 광경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하에 끝없이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높은 대외적위신과 함께 다시한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하는 뜻깊은 마당이였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축구선수들과 상봉하니 마치 조국에서 형제들을 만나는 심정이였고 우리를 보며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선수들을 보고 최선을 다했다고 위로도 해주며 함께 눈물도 흘리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국선수들이 녀자력기를 비롯하여 11 개의 금메달과 39 개의 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위기로 조성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이룩해낸것은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부강발전하는 우리 공화국의 힘있는 국력의 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단동지부의 책임자로서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을 위하여 성원들 모두가 일을 더 잘하도록 이끌어나가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단원 류창환

우리 응원단이 조국녀자축구팀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할 때 처녀선수들이 《미안합니다.》며 울음보를 터뜨릴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자랑찬 조국의 딸들이고 은메달도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데, 우리가 너무 욕심만 부리고 기대한것 같아 오히려 우리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경기 전반전에 크게 다쳐 담가에 실려나간 우리팀 11 번 안명성주력선수의 상황이 걱정스럽다. 조국을 대표하여 국제경기장에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고 뛴 장하고 용맹한 우리팀 처녀선수들에게 다시한번 경의의 인사를 머리깊이 숙여 드린다.

조국을 받드는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있어서 이번 응원단성원으로 참가할수 있게 된것이 무상의 영광이고 행복이였다.



단원 리설희

저는 이번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조국의 체육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응원단의 한성원으로 항주에 갔다왔습니다.

우리는 항주에서 괴뢰들을 통쾌하게 타승하고 결승경기에 참가하는 우리 조국의 녀자축구선수들을 목청껏 응원하고 또 응원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하여 우리 조국선수들의 강인하고 이악한 기질과 노력을 페부로 실감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최선을 다해 뛰고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미더운 처녀축구선수들을 조국을 위하여 마지막 일분일초까지 모든 힘과 마음을 다 바쳐 용감하게 잘 싸웠다고 고무해주며 꼭 껴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응원단활동에 참가하면서 앞으로 우리 선수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리라는 결심을 다시한번 굳게 다지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응원단활동을 위하여 모든 노력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동지와 심양총령사관 총령사동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그리고 응원단 모든 동지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항주기행

응원단성원 윤영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응원단의 일원으로 비행기를 타고 아름다운 항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19차 아세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결승전에 응원하려온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나의 마음은 기쁘고 설레였다.

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항주는 절강성의 소재지이다. 아열대계절풍기후에 처해있는 항주시는 록음이 우거지고 울긋불긋 백화가 만발한 깨끗하고 문화적인 도시이다. 우리는 힐톤호텔에 도착하여 행장을 풀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아침식사를 끝내고 오늘 저녁 결승전에 진출할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을 응원할 노래들을 련습하였다.

련습을 끝마치고 시간여유가 있어 서호(西湖)를 유람하려 갔다. 서호를 못보면 항주에 왔다고 말하지 말라는 그 유명한 서호를 유람한다고 하니 기쁨이 저절로 나왔다.

서호에 이르니 유람객들로 붐비였다. 그날따라 날씨가 흐려서 시원하다. 대도시의 한복판에 전당강 (钱塘江) 의 모래가 충적되면서 큰 호수를 이루었다는 서호는 유서도 깊다. 잔잔한 푸른물결우에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관객들로 붐비는 서호는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옛날 왕이 총

애하는 궁녀들이 놀았다는 섬은 꽃수레로 장식한 것처럼 화려했다. 모양과 색갈이 다른 붕어들이 너울거리며 자태를 자랑하는 련못을 유람하면서 구름다리도 건느면서 추억에 남을 사진들을 열심히 찍었다.

우리는 서호를 구경하고 돌아와 저녁식사를 끝내고 황룡체육중심경기장으로 출발하였다. 경기장에 들어서니 6만명을 수용할수 있다고 하는 경기장은 만원을 이루었는데 관중들의 대부분이 중국사람들이지만 선명한 단체복에 빨간 모자를 쓰고 응원봉을 흔드는 조국응원단들이 유달리 눈에 띄운다.

저녁 8시, 우리 조국팀과 일본팀이 입장하자 환호성이 터졌다.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우리는 조국선수들과 관중들과 함께 경기장에 울려퍼지는 우리 나라 <애국가>의 장엄한 주악에 맞추어 애국가를 부르니 이국이라고 하여도 조선사람의 긍지로 가슴이 부풀고 해외공민의 자부로 긍지스럽다.

경기가 시작되였다. 우리 나라 녀자축구선수들은 경기시작부터 일본팀에 공격을 가하였다. 아시아녀자축구에서 강자로 불리우는 우리 나라 축구선수들은 코로나방역으로 몇년간 국제축구경기에 참가하지 못하였어도 필승의 신심에 넘쳐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였다. 조국의 응원단원들이 일치하게 노래부르며 손에 든 응원봉을 치면서 우리 나라 녀자축구선수들을 응원하였다. 우리 응원단도 뒤질세라 응원봉을 치면서 목청껏 <우리선수 이겨라>고 웨쳤다. 중국사람들도 우리 조국선수들을 적극 응원하였다. 마치 평양에서 경기를 하는것 같다.

일본팀과 우리 나라 축구선수들과 치렬한 공방속에서 일본팀이 9분만에 역습으로 먼저 득점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조금도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경기 13분에 11번 안명성선수가 공을 몰고 돌진하다가 상대방선수에게 밀치워 넘어져 움직이지도 않는데 심판은 경기를 멈추지 않았다. 관중들이 불만을 터뜨려서야 경기를 정지하였는데 심하게 다쳐 담가에 실려 나갔다. 안명성선수는 남조선팀과 경기할때도 날쌔게 돌진하여 득점한 선수였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 경기가 계속되였다. 파도처럼 련속공격 38분에 위정심선수가 넘겨준 공을 김경영선수가 재치있게 동점꼴을 차넣었다. 순간, 온 경기장이 떠나갈듯한 환호성이 터졌다. 우리도 서로 붙잡고 웨쳤다.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는 경기장은 황홀한 전관등으로 대낮같이 환한데 <조선 이겨라> 응원의 함성소리는 경기장을 진감하는듯하였다.

후반전에도 우리 선수들은 드센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일본선수가 65분만에 머리받기로 득점하고 련달아 또 두꼴을 넣었다. 우리 선수들이 공격에 집중하다나니 방어에 틈이 생긴것 같다. 나어린 우리 선수들은 락심하지 않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관중들도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 두팀이 다 어린선수들로 구성된것을 보아 이기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달말의 올림픽경기준비를 위해 연습하는 목적이 있는것 같다.

이번 경기에서 실력이 일본선수들보다 높은 우리 선수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일본팀은 방어에 집중하고 역습을 기도하였다. 대부분 일본팀구역에서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비록 경기에서 아쉽게 졌지만 우리 선수들은 높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우리는 경기가 끝나고 늦은 밤 체육촌에 가서 조국의 녀자축구선수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뜻깊은 기념촬영도 하였다. 나는 지금도 조국선수들과 찍은 사진을 보고 또 보며 더 없는 긍지와 자랑과 행복으로 가슴벅차있다.

10월 7일,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관광일정인 우진 (乌镇) 으로 가기 위해 뻐스에 올랐다.

절강성 동향시 (桐乡市) 의 수향 (水乡) 인 우진은 2000년의 력사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 대신 물길이고 차량 대신 배들이다. 옛 단층기와집들이 고풍스럽고 아늑하게 느껴지는 수로와 돌다리가 인상적이다.

강남염색은 남색무늬천으로 이곳에서는 쪽빛으로 물들어 나붓기는 염색천들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 우진의 수로와 나무집, 돌다리, 나루배가 특이하였으며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여 우리들은 나루배에 올라 손을 젓고 유쾌하게 노래와 춤, 이야기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 사진촬영도 하였다.

10월 8일, 우리는 아침 일찍 항주시를 끼고흐르면서 항주만 (杭州湾)으로 흘러가는 전당강을 구경하려 갔다. 예로부터 하류의 장강삼각주 지역에 밀물이 지면 전당강의 강물이 역류하는 조석해일현상이 발생해 홍수를 일으켰다고 한다.

일화로 전해오는 이야기중 육화동자의 부모가 범람하여 역류하는 강물에 휩쓸려 가버렸기때문에 분노한 육화동자가 룡왕에게 돌을 던져 부모를 돌려달라고하는 동상이입구에 서있다. 전당강이 역류할때 생기는 해일파도는 지구상의 강물중에서 가장 크고 빠른것중의 하나라고 한다.

우리는 항주시내를 끼고 흐르는 전당강 푸른물을 바라보며 맑은 아침공기를 실컷 들이키며 서로 웃고 떠들면서 사진촬영에 여념없었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3박 4일 응원단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응원단 리순남단장을 비롯한 조직책임자들이 성의껏 준비한 푸짐한 연회석에서 조선의 녀자축구선수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열렬히 응원한 우리 응원단성원들에게 주는 조국선수단의 감사의 인사도 전달받았다. 우리 응원단성원들은 격동된 자신들의 심정과 응원과정의 소감들을 발표하였다.

성원들의 감정은 다양하고 진실했고 조국애로 끓어넘쳐있었다.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내 조국의 해외공민으로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조국의 녀자축구선수들을 응원하려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항주에 달려와 응원활동을 함께 하고 귀로에 오르는 수확의 기쁨속에서 축배잔을 높이 들었다.

나는 이번에 항주응원단에 지성어린 후원을 해주신 공민들과 애국동포들의 소행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항주응원단성원들이 서로 도와주고 관심해주는 동지애에 깊이 감동되였다. 참으로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항주응원단의 한성원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인생에서 잊을수 없는



가장 뜻깊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였다.

나는 이번 응원단에 보내주고 전기간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신 최은복의장동지. 총령사동지께 진심으로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리순남단장을 비롯한 조직책임자, 대렬책임자들, 응원지휘자들의 로고와 수고에 인사를 드린다.

나는 불굴의 정신으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려 용감히 싸운 조국선수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내 조국을 빛내이는 애국의 한길에서 내나라 내조국을 받드는 참된 애국공민이 되겠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축시법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 부회장 최명진 -

나의 고향은 중국 동북지방의 연길이다.

일찌기 항일빨찌산의 《연길폭탄》으로 유명한 내 고향은 산도 들도 그대로 항일의 옛 전구들이며 어디를 가나 영용한 **김일성**장군님빨찌산의 성스러운 발자취가 뚜렷이 새겨져있다.

어려서부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일제를 쳐부시던 항일빨찌산의 신비스러운 축지법이야기를 옛말처럼 들으며 자란 나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몰라보게 변모되는 내 조

국의 기적적인 소식들이 특별한 감동과 격정속에 안겨온다.

전설처럼 들려오는 조국소식,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복받은 우리 인민만이 구가할수 있는 희세의 위인찬가이고 부흥강국시간표를 앞당기며 노도쳐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축시법신화이다.

천지개벽의 축시법—문명의 상상봉

빨찌산김대장께서는 한걸음에 천리를 주름잡는 신묘한 힘과 재주를 지니시고 승천입지, 신출귀몰하면서 왜놈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히셨다.

김대장유격대는 모두 날개가 돋치였는데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훨훨 날아다니며 큰 부대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어졌다가도 금시 나타나면서 왜놈들을 정신차릴새 없이 족쳐댔다.

…

동요시절의 여름밤 화토불가에 모여앉아 마을로인들에게서 황홀하게 듣군하던 항일전의 축지법전설.

어이하여 그 시절의 알싸한 화토불내가 아득한 세월을 넘어 이 중로배의 페부에 다시금 찾아들며 가슴울렁이게 하는것인가. 오늘도 환희롭게 이어지는 빨찌산전설이 나로 하여금 축지법이야기에 흠뻑 취해 밤새는줄 모르던 유년기의 그 이름못할 신비경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여주는것이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무상한 천지개벽의 시대가 곧 오늘도 이어지는 빨찌산전설이라고 피력하게 된다.

접하게 되는 조국소식들마다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아닐수 없다.

평양의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세계의 각광을 모은것이 지난해 4월이였다. 그런데 반년후에는 련포온실농장이, 그로부터 또 반년후인 올해 4월에는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련이어 준공되여 만인의 선망과 경탄을 자아내였다.

아아한 80층의 《보석탑》도 현란하고 신선들의 금루옥궐같은 경루동의 호화스러움도 놀라웁다.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온실농장의 규모와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아흔아홉가지 모양의 농장원살림집들도 입을 다물수 없게 하고 송화거리의 3배에 달한다는 넓은 부지에 솟아난 화성땅의 《미남자》들도 대번에 반할 지경이다.

허나 더욱 경이적인것이 있다. 창조와 건설의 속도이다. 지경밖과는 전혀 다른 조선의 시간이다.

언제인가 인터네트에서 보니 유럽의 어느 한 교회건설은 20세기초엽에 시작되여 21세기에도 계속되고있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웬만한 거리 하나를 일떠세우는데 보통 5~10년을 허비하군 한다.

그런 계산법대로라면 최근년간 조국이 펼쳐온 변혁의 설계도는 적어도 옹근 한세기의것이였다고 본다. 가증되는 제재압박과 거듭되는 자연재해에 건국이래의 대동란. 이런 악조건속에서 수도에서만도 《신평양》을 일떠세우는것과 맞먹는 상상초월의 일판을 벌려놓았으니 《상식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백년은 걸려야 할 대사인것이다. 조국은 그 한세기를 단 몇년으로 확 줄여버렸다.

많은이들이 희한해하다 못해 어리둥절해진다. 조국을 드문히 다녀본 이 사람에게도 기이하다. 시간을 주름잡는다는 축시법이 이런것이 아닐가.

자본가들도 부러워할 호화주택동네가 순간에 일떠서니 석삼년을 일순으로 줄인 축시법이요, 먼 앞날의 리상이였던 문명의 새 거리들이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처럼 쑥쑥 솟구쳐오르니 수십년을 훌훌 뛰여넘는 축시법이다.

내 조국의 눈부신 기적들은 잊지 못할 빨찌산전설을 떠올려주는것으로 하여 보다 큰 감흥에 젖게 된다.

많은이들이 오랜 세월 눈에 익혔을 군용비행장이 대번에 사라지니 있다가 없어지는 《이정화령》이요, 은빛온실바다와 희한한 선경들이 얼른잠간 생겨나니 없다가도 생겨나는 《이령화정》이 아닐가 한다.

장백의 산야를 주름잡던 빨찌산전설이 세월을 주름잡는 **김정은**조선의 축시법전설로 이어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다.

상고해보면 이즘에야 비로소 느끼는 심경이 아니다. 근년간에 내가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부딪치군 하던 격세지감이 되살아난다.

거의 3년만에 다시 조국을 찾았던 몇년전의 충격을 잊을수 없다. 십년도 아닌 삼년, 그리도 짧은 시간이 흘렀건만 완전히 달라진 평양의 황홀경앞에서 한동안 어리벙벙할 정도였다.

모든 건축물들이 고도로 예술화된 미래과학자거리와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의 과학기술전당, 엘도라도식 문수물놀이장과 경쾌한 주로가 펼쳐진 미림승마구락부, 원아들의 궁전인 평양육아원, 애육원, 아이들이 치료와 공부를 함께 하는 옥류아동병원과 현대적으로 꾸려진 류경치과병원, 문명국의 체모를 갖춘 은하과학자거리 …

평양뿐이 아니였다. 그 3년간에 마식령스키장과 연풍과학자휴양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원산육아원, 애육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의 선경마을을 비롯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에 얼마나 훌륭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던가.

아, 삼년간에 천지개벽이라니,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여버렸구나 하는 탄복속에 저도 모르게 한달음에 일행천리하던 항일빨찌산의 축지법전설이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조국방문은 충격의 련속이다. 다음해에 또 조국에 가보니 사회주의만복의 절정으로 웅장화려하게 솟아오른 려명거리가 눈뿌리를 뽑고 류경안과종합병원,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새 의료시설들, 평양가방공장, 룡악산비누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도 조국의 눈부신 발전속도를 과시하고있었다.

이제는 삼년도 아닌 1년만의 천지개벽이였다.

하다면 갈수록 억세인 힘으로 미래를 당겨오고있는 내 조국의 1년은 과연 얼마만한 세월을 응축한것인가. 10년? 20년?

분명한것은 시계의 시침을 분침으로, 분침을 초침으로 바꾸어 세월을 주름잡고있다는것이다. 하여 하루에 열흘백날을 앞당기는 축시법의 기적들이 날마다 탄생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빨찌산전설, 천변만화의 축시법전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항일빨찌산이 신축자재하고 변화무쌍한 축지법으로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왔다면 공화국은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축시법으로 문명개화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있다.

백두산발을 주름잡던 항일빨찌산의 축지법전설이 오늘은 문명의 상상봉에로 나래치는 **김정은**조선의 축시법전설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단번도약의 축시법—행성의 초강국

항일대전의 축지법전설이 《일속》으로 《창해》를 이긴 만고의 빨찌산신화였다면 **김정은**시대의 축시법전설은 단번도약으로 세상을 바꾼 미증유의 강국신화이다.

강국,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바라고 바라온 꿈이였던가. 내 나라가 왜놈이나 양놈이 넘보지 못하게 강했다면 나의 할아버지세대가 선조의 뼈가 묻힌 조국땅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느는 가슴아픈 일도 없었을것이다.

반만년민족사가 그리도 간절히 숙원해온 강국의 리상이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더없이 후련하고 장쾌하게 이루어지고있다.

그에 대해 먼저 최강의 힘을 최단기간에 비축한 **김정은**조선의 병기신화를 놓고 이야기해볼가 한다.

솔직히 지난 시기 나는 텔레비죤에서 강대국이라 일컫는 나라들의 으리으리한 무기들을 볼 때면 몹시 부러우면서도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그런 무기를 못가진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군 하였다.

그런데 이제 더는 그런 부럼도 위안도 필요없게 되였다.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위력한 무기가 모두 우리 조국에 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싸일,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 극초음속미싸일, 핵잠수함같은 최강의 병기들이 다 조선의것이 되였다. 거기에 더해 세상에 없는 600㎜초대형방사포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괴물》미싸일 등 조선만의 절대병기들까지 가지고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고있으니 대포를 가진 침략자와 화승총으로 맞서야했던 민족의 한이 말끔히 씻겨지는 것 같다.

나나 여기 동포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것은 조국의 병기창들에 그득히 쌓여진 그 막능당의 절대병기들이 모두 최근 몇년새에 출현하였다는 사실이다. 정말로 눈 몇번 깜박이며 기쁨과

의혹, 새로운 기대의 교차속에 기연미연하는 동안 어제가 옛날이 되고 미래가 오늘로, 꿈이 현실로 되는 강국건설의 축시법이 펼쳐졌다.

희열과 함께 의문이 슬며시 머리를 들군 하였다. 경제규모가 크다는 대국들도 몇십년씩 걸린 일을 어떻게?

아마 세상사람들은 더 놀란 것 같다. 《조선의 첨단무기개발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다.》, 《극단한 제재봉쇄속에서도 몇달을 주기로 새 전략무기들을 련속 내놓군 하니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 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라는 찬탄과 절망의 목소리들이 미국과 서방세계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다.

하늘의 도움을 받는 나라!

이야말로 수십만 관동군의 포위를 감쪽같이 뚫고 저들의 뒤통수를 치는 항일빨찌산의 령활무쌍한 축지법에 눈깔이 뒤집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던 왜놈들의 비명소리와 다를바 없다.

얼마나 통쾌한가. 이 얼마나 가슴후련한가.

강국건설의 축시법으로 최단시일내에 최강의 힘을 갖춘 **김정은**조선의 병기신화에 동서방을 막론하고 전세계가 경이를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민족의 강국념원을 실현한 **김정은**시대의 축시법전설은 행성을 진감하는 초강국신화이다.

초강국에 대해 숙고해보려니 해방전 《보국대》로 일본 북해도에까지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어릴적 우리 마을의 할아버지 한분이 생각난다.

그 로인장이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일제가 온 아시아를 집어삼키려 날뛰던 1940년대 전반기의 어느날 **김일성**장군님빨찌산의 특사가 축지법을 써서 일본렬도를 휘젓고 다니다가 《대본영》에 들어가 최후통첩장을 넘겨주고 유유히 돌아갔다는 전설이다.

지금에 와서 되새겨보면 《아시아의 맹주》라는 일본보다 **김일성**장군님빨찌산이 더 강하다는 인민의 확신이 투영된 하나의 강군신화였다.

오늘날 제국주의렬강들의 맹주라는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는 분명하다.

이미 70년전에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기는 반미전승신화를 창조했던 내 나라가 이제는 미국본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임의의 순간에 악의 제국을 결딴낼 힘과 의지, 기세를 주저없이 과시하고있다.

이 행성에 나라는 많아도 《초대국》의 위협공갈에 당당히 맞서 보복타격작전을 공개거론하는 나라, 미국의 《독립절》에 제국의 심장부를 도려낼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쏴올리는 나라,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대미초강경의지를 당당히 천명하는 나라는 오직 우리 조국뿐인것으로 알고있다.

정의의 핵강국이 포효를 터칠 때마다 온 미국땅에 지진이 일고 《북조선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지구상에 미국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용기를 다 갖춘 나라는 북조선뿐이다.》, 《북조선과의 전쟁은 자멸이다.》라는 아우성들이 터져나온다.

미국으로서는 두려운게 참 많을것이다. 저들의 무장장비우세가 영원한 과거로 되고 조선의 군사기술적강세가 불가역적인것으로 다져진 오늘의 현실도 불안하지만 도저히 예측할수 없는 래일이 더욱 공포스러울것이다.

갈수록 빠른 속도로 최첨단무기들을 내놓으며 대미압박강도를 높이고있는 북조선이 앞으로 5년, 10년후에는 대체 어떤 모습일것인지, 다름아닌 이것이 백악관을 괴롭히는 최대의 고민거리라는 것이 세상여론의 대체적인 평인듯 하다.

세월을 휘여잡는 축시법으로 강국에서 초강국으로 일약 상승하여 미국중심의 세상을 조선중심의 세상으로 바꾸어버린 그 불가사의한 단번도약, 련속도약의 힘과 속도가 제일로 무서운것이다.

10년전만 해도 평양의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놓고 《믿을수 없다.》고 험담하던 미국으로서는 조선이 단 몇년새에 《화성포-14》형으로부터 《화성포-18》형까지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무려 다섯차례나 갱신한 사실이 놀랍고도 두려울것이며 그 폭발적인 전진가속도로 대체 어디까지 나아가려는것인지 생각만 해봐도 소름끼칠것이다.

령토도 인구도 작은 나라가 믿기 어려운 축시법으로 제국주의괴수를 디디고 올라 피할수 없는 최후멸망의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바로 이것이 행성을 진감하는 초강국신화가 아니겠는가.

한번 또 한번 대지를 박찰 때마다 더 높이 도약하는 《화성포》의 격렬한 솟구침마냥 세월을 주름잡아 련속도약하며 세기의 상상봉에로 치달아오르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21세기의 최강국이라고 나는 소리높이 자랑한다.

김정은시대 축시법—위민헌신의 산아

자고로 동방에서는 여의주가 동경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손에 쥐면 온갖 조화를 다 부릴수 있다는 그 령묘한 구슬이 고구려벽화무덤들에 그려져있는것도, 몇년전 어느한 나라의 정부수반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여의주를 물고있는 룡의 모습을 형상한 도자공예품을 선물로 올린것도 그런 사연에서일것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세월을 앞당겨 기적을 창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설적위인상을 우러르느라면 정말 《여의주》를 지니신게 아닐가 하는 생각을 금할수 없게 된다.

그이께서 나라를 이끄신 년조는 그리 길지 않으며 력사의 한순간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허나 그 나날에 이룩하신 업적은 벌써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전대미문의것이다.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백승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사상리론적업적도 인류사상사의 거봉을 이루었고 최악의 시련속에서 최강의 힘을 비축하신 국가핵무력건설업적도 민족사에 길이 빛날 대공이며 자력자강의 거창한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신 문명건설의 업적도 그 높이가 저 하늘에 닿고있다.

일전에 어느 책에서 보니 인류건축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건축가들이 일생동안 남긴 유산은 보통 10개 남짓한 정도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일떠세우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어언간 수백개에 이르러 조국인민들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듯 눈부신 대업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이루시였으니 동서고금의 뭇위인들의 공적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그 지대한 업적을 어찌 비범성, 천재성의 산물이라고만 하랴.

작은 초불도 자기를 깡그리 태워야 주위에 빛을 뿌릴수 있다. 하물며 억만의 시간을 단 몇년으로 주름잡아 이룩하신 신화적인 기적들은 얼마나 거대한 희생을 전제로 할것인가.

언제나 인민에 대한 열화의 정으로 뜨거운 절세위인의 위대한 심장의 토로를 삼가 새기여본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입니다.》

인민을 위해 만짐을 지고!

인민을 위해 가시밭도 헤치며!

휘황한 미래가 어떻게 세월을 앞당겨 조국땅에 펼쳐지고있는것인지, 어느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전설같은 기적들이 연해연송 이어지고있는것인지 뉘라서 모르겠는가.

조선을 세계의 정상에 떠올린 **김정은**축시법의 《여의주》는 그 어떤 전설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그분의 위대한 심장속에 있었던것이다.

지금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전진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세기적목표들을 끊임없이 점령하는 련속비약의 주기가 비상히 짧아지고있음을 직감하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강국의 그 놀라운 발전가속도의 비결에 대해 더 들어보려니 얼마전 어느 책에선가 보았던 몇개의 수자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문수물놀이장형성안 113건, 미래과학자거리형성안 590여건, 려명거리형성안 1 390여건, 양덕온천문화휴양지형성안 2 000여건, 삼지연시형성안 무려 8 800여건…

수자는 말이 없어도 후더운 격정의 파도를 내 가슴에 세차게 일으켜준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가.

혈육이고 고향이며 조국, 필경 사랑의 전부이리라. 품을수록 더 품안아주고싶고 그를 위해 복무함이 락으로 되는 희열의 제일 큰 샘이리라. 한겨울에도 꽃피는 봄을 안겨주고싶고 일년에도 열두번의 황금가을을 마련해주고싶어 심신을 깡그리 태우게 하여주는 애국헌신의 열원이며 대상이리라.

그래서 그이의 인민사랑은 갈수록 더욱 뜨거워

지는것이며 그이의 위민헌신은 더더욱 눈물겹게 펼쳐지는것이 아니겠는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조국의 눈부신 전진속도, 갈수록 더욱 무섭게 질주하고 상승하는 **김정은**조선의 발전가속도는 바로 작열하는 태양에만 비길수 있는 거룩한 위민헌신의 열도에 비례하는것이였다.

조국의 인민들중 누구도 모른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체 언제 주무시고 언제 새날의 일과를 시작하시는지.

허나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이것만은 알고있다고 한다.

나라에서 맨 선참으로 새벽문을 여시고 강행군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분이 다름아닌 **김정은**원수님이시라는것을.

그이께서 바치신 위민헌신의 로고가 있어 전설의 축시법이 조국땅우에 펼쳐지고 세인을 놀래우는 마식령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와 같은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될수 있었으며 극초음속미싸일의 속도와 같은 국방발전속도도 이루어질수 있었다는것을.

흔히 사람들은 말하군 한다. 아무도 정복할수 없고 임금도 제왕도 어쩔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것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허나 자신의 의지대로 시간을 다스리시며 하루를 백날천날맞잡이로 분투하시는분, 그렇게 안아오신 천금같은 시간으로 조국과 인민에게 축시법의 날개를 달아주시는분이 계시니 바로 내 조국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신것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공화국처럼 적대세력들의 끈질기고 야만적인 제재봉쇄속에서 국가건설을 진행한 례가 인류사에 있어본적 없다.

미증유의 압박속에서 진행되는 간고하고 특수한 상황인것으로 하여 전진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곧 적대세력들의 외부적압력에 눌리워 답보하고 침체하게 되며 종당에는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여있는것이 바로 우리 조국일것이다.

허나 빠르면 빠를수록 힘은 커진다. 조선의 질풍노도는 그 속도자체가 불가항력의 증가로 이어지며 적대세력들의 압력을 걸음마다 쳐갈기고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전대미문의 악랄한 도전속에서 오히려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전설적인 축시법을 능란하게 구사하시는 걸출한 위인을 모신것이야말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받아안은 커다란 행운이 아닐수 없다.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전설의 축시법으로 우리 공화국을 세기의 령마루에로 이끌어가시는 절세위인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나날이 더욱 거세찬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모든 면에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올라선 천하제일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숙적과 역적

한 성 옥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

새삼스럽게 이 두 개념에 대해 론하자는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28년전인 1895년 10월 8일,력사에 《을미사변》(명성황후살해사건)으로 기록된 바로 이날에 감행된 왜나라족속들의 반인륜적범죄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함과 동시에 그 피비린 과거죄악에 대한 일고의 성토도 없이 《미래지향적관계》를 읊조려대며 굴종과 굴욕의 추악한 발자취를 찍고있는 천하의 매국노가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한번 고발하려 함이다.

명성황후살해사건은 일찍부터 우리나라를 삼켜보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사무라이족속들에 의해 감행된 특대형의 극악한 반인륜적살인만행이였다. 1873년 11월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짜리로씨야

세력에 의거하여 자기 식의 정치를 시작한 명성황후는 조선을 두고 군침을 흘리고있던 일본에있어서 골치거리였다.

하여 일본은 1895 년 8 월 악명높은 사무라이후예인 미우라 고로라는자에게 명성황후를 살해할 흉계를 꾸미도록 위임하였다.

주조공사의 탈을 쓰고 근 한달동안 공사관에 들여박혀 기회를 노리던 미우라는 드디여 자기의 강도적본색을 드러냈다.

이자는 10 월 3 일 서울주재 일본공사관 밀실에서 사무라이출신의 살인두목들을 모아놓고 살인음모날자를 10 월 8 일로 확정하였다.

1895 년 10 월 8 일 이른새벽 수백명의 일본군대와 수십명의 령사경찰, 200 명의 훈련대와 50 여명의 깡패 등으로 무어진 살인무리들은 건청궁을 포위하고 이리떼마냥 달려들었다.

일제살인마들은 놀라서 허둥거리는 궁녀들을 마구 죽였으며 수많은 궁녀들중에서 명성황후를 찾아내기 위해 미친듯이 돌아쳤다.

쓰러져있는 궁녀들속에서 명성황후를 끝내 찾아낸 깡패들은 숨도 채 지지 않은 그를 뒤쪽마당에 끌고가 무참히 불태워 죽이였다.

명성황후를 참혹하게 학살한 일제살인귀들은 범죄행위의 증인들과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살아서 현장을 목격한 궁녀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명성황후살해사건에 직접 관여한 한 일본인은 후에 자기의 수기에서 《선혈로 물든 시체에는 석유가 뿌려지고 불이 달렸다. 순식간에 시체는 화염에 싸여 이상한 냄새를 풍기였으며 참으로 귀곡추추(귀신도 서글프게 운다는 뜻)하였다.》라고 고백하였다.

주권국가의 상징으로 가장 신성시되고있는 황궁안에 마구 뛰여들어 한 나라의 황후까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일제살인귀들의 죄행은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도한 반인륜적행위였으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한 특대형국가주권침해죄,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였다.

명성황후살해사건이후 일제는 《을사 5 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조작해내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였으며 식민지파쑈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을 다 들씌웠다.

일본은 전대미문의 특대형 반인륜범죄행위들에 대해 응당 석고대죄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오늘까지지도 파렴치한 력사외곡과 령토강탈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저들의 만고죄악을 합리화, 정당화하려 온갖 권모술수와 요술을 피워대고있다.

하건만 윤석열역적패당은 민족의 천년숙적과의 그 무슨 《관계개선》을 위해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친일굴종적인 망발을 줴쳐대며 오만무례하게 날뛰는 일본반동들에게 굽신거림으로써 섬나라쪽발이들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광기에 부채질을 해주고있다.

최근에는 민심과 국제사회의 준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 해양방류책동에 극구 동조해나서고있어 민심의 치솟는 분노를 더욱 격앙시키고있다.

지금 괴뢰지역의 각계층은 일본에 굴종하는 윤석열은 리완용보다 더한 력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만 맞는 윤석열의 깡통외교, 예속외교, 왕복외교를 민중은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윤석열이 처리수다, 윤석열은 그자체가 백해무익한 핵오염수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전쟁은 끝날수 없다, 일본총독 윤석열을 처단하자고 웨치며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며 천벌은 정수리에 떨어지는 법이다.

섬나라쪽발이들이 아무리 모지름을 써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천년숙적에게 아부굴종하며 더러운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친일역적 윤석열이 력사의 시궁창속에 처박힐 날은 멀지 않았다.

조선로동당창건 78돐을 온 나라가 뜻깊게 경축

온 나라 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78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군중들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영구불멸할 업적을 돌이켜보며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당창건기념탑에서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돌이켜보았다.

조선로동당창건 78돐경축 제4차 전국조각, 공예축전이 진행되는 평양국제문화회관을 찾은 근로자들은 조각, 공예품들을 돌아보았다.

각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경축모임, 웅변모임들이 있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10월명절을 경축하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청년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였다.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도 명절을 즐기는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차넘치였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 준공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영양액비료공장이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일떠서 준공하였다.

온실남새생산용영양액비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은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솟아난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이다.

원료장과 저장장, 배풍기실, 생산장, 제품출하장을 비롯한 생산 및 후생건물들을 그쯘히 갖춘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서부지구에 새로 건설되는 온실농장들에 영양액비료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새로 건설된 영양액비료공장 준공식이 4일에 진행되였다.

내각부총리 전승국동지,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범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종업원들, 건설자들, 순천시녀맹돌격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화학공업상 김철하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끝)

생산과 경영관리에서 모범인 단위들을 10대최우수기업으로 선정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뚜렷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중앙기관과 도인민위원회들에서 우수한 기업체로 추천된 단위들가운데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안주뽐프공장,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단천제련소, 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 신양군영예군인고려약공장, 삼흥경제정보기술사, 나래도자기공장, 천리마타일공장, 대동강맥주공장이 10대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였다.

10대최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은 앞으로 해마다 진행된다.(끝)

각지 농촌들에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빠른 속도로 추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눈뿌리 아득히 뻗어간 서해벌방의 연백벌, 열두삼천리벌, 재령벌은 물론 동해지구와 북변의 산골포전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무겁게 고개를 숙인 이삭들이 설레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있다.

황금나락 설레이는 풍요한 가을을 마련해준 어머니 우리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안고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다그치고있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려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난 시기보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가 훨씬 앞당겨 추진되고있다.

당중앙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이들은 올해

농사를 하루빨리 성과적으로 결속할 열의에 넘쳐 말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농업위원회와 각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이 자신들의 위치와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곡식이 익는족족 거두어들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각급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이 백방으로 강화되는 속에 전야마다에서는 련일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우리 당에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

이런 불같은 맹세로 가슴끓이며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은정속에 흐뭇한 작황이 펼쳐진 포전들에서 농기계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하루하루를 혁신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지원자들의 투쟁열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업근로자들과 올해 농사를 함께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해 주인다운 일본새를 발휘하고있다.

올해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열의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실적은 시간이 다르게 계속 높아지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에서 이룩되고있는 이 성과는 쌀로써 당을 받들고 우리 혁명을 보위하려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의 발현으로서 력사적인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분투하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로동신문



우리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한해 농사를 총화하는 결산분배모임 련이어 진행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뜻깊은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해가고있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끝없는 기쁨으로 온 나라 농촌이 흥성이고있는 가운데 서해곡창 황해남도의 농장들에서도 알곡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자랑을 안고 결산분배가 련이어 진행되고있다.

지난 8일 배천군 역구도농장에서 제일먼저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결산분배가 진행된데 이어 신천군 백석농장, 재령군 읍농장, 은천군 마두농장과 제도농장, 장연군 산천농장, 안악군 은정농장, 태탄군 읍농장, 신원군 무학농장, 연안군 소봉농장, 봉천군 한촌농장 등에서 련일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졌다.

나라의 농업을 대표한다고도 할수 있는 도, 드넓은 전야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이 로적가리를 높이 쌓고 한해 농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있는 격동적인 소식들은 농사일을 함께 책임진 심정으로 진정을 바쳐온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황남전역에서 날마다 펼쳐지고있는 가슴벅찬 화폭들은 온 한해 농사일을 두고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눈물겨운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황해남도가 기치를 들고 나가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준 우리 당의 하늘같은 은덕은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알곡증산투쟁에로 총궐기시킨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은천군 마두농장과 제도농장의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은 대동강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침수피해를 적지 않게 받군 하던 자기들의 농장에도 관개체계의 새 력사를 펼쳐주고 많은 린안비료를 보내준 당의 은정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한평의 땅, 한포기의 곡식도 억척스럽게 지키고 가꾸었다. 리당위원회들의 지도밑에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백가지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기 위한 된바람이 부는 속에 농장들의 포전마다에는 례년에 없는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

집단적혁신으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 수매를 지난 시기보다 20일이상 앞당겨 와닥닥 끝낸 마두농장과 제도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한 기쁨을 안고 결산분배를 진행하였다.

재령군 읍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현대적인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영농공정별에 맞게 우선적으로 보장해준 당의 은정에 기어이 다수확으로 보답할 비상한 각오밑에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이악하게 농사를 지었다. 농장일군들부터 앞장에서 초급일군들을 이끌고 군과 도의 여러 앞선 단위들에 찾아가 다수확경험을 진지하게 배웠으며 지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물관리방법과 비료주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재해성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농기계가동에 필요한 부속품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포전마다에서 기계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갔다.

결과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 정보당 3t도 못내던 일부 포전에서 2배이상의 소출을 거둔것을 비롯하여 정보당 평균 1.5t의 알곡을 증수하고 로적가리를 높이 쌓아올렸다.

농업생산력이 미약하던 장연군과 신원군의 농



장들에서 전례없는 알곡생산성과를 이룩하고 떠들썩하게 결산분배를 진행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자신심과 다수확열의를 백배해주었다.

신원군 무학농장과 장연군 산천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모든 농장, 모든 경지면적에서 다같이 정보당수확고를 높일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뼈속깊이 새겨안고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집단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지력을 개선하고 앞선 영농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였다. 특히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변혁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땅이 녹기전부터 농장에 달려나와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경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을 비롯한 지원자들의 불같은 모습에서 당과 인민의 하늘같은 기대와 믿음을 폐부로 절감하며 애국의 열정을 더 높이 발휘하여 응당한 결실을 안아왔다.

《풍년가》의 노래소리 울려퍼지고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지는 그 어느 분배장에서나 오늘의 이 기쁨, 이 경사를 안아온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끝없이 넘쳐흘렀다.

분배를 받아안은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점령 못할 알곡고지가 없다는 자신심과 함께 황해남도가 농업생산에서 언제나 기치를 들고나갈것을 바라는 당의 믿음과 기대에 해마다 풍년가을을 펼쳐놓는것으로 보답할 열의가 차넘치고있었다.

온 도를 들썩하게 하며 결산분배는 계속 진행되고있다.

새 농촌마을에 공동축사가 일떠섰다

공화국에서 조선로동당의 다심한 사랑에 떠받들려 지난해 일떠선 평안북도 태천군 룡흥농장 소재지마을의 공동축사건설이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농촌살림집들을 건설하면서 공동축사를 규모있게 지어주어 농업근로자들이 집짐승을 기르면서 거름생산도 할수 있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당의 뜻을 받들어 태천군 룡흥농장 소재지마을에 공동축사를 시범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도적인 관심속에 진공적으로 벌어졌다.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공동축사를 손색이 없게 일떠세울 일념 안고 모든 작업공정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다그쳐나갔다.

하여 짧은 기간에 돼지와 염소, 토끼를 비롯한 수백마리의 집짐승을 기를수 있는 2 개 호동의 공동축사가 건설되게 되였다.

공동축사에는 수의방역실과 위생통과실이 꾸려져있고 집짐승우리마다에는 자연수를 리용하는 물공급체계가 도입되여있다. 집짐승배설물을 처리하여 많은 거름을 생산할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져있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 현대적인 새 살림집을 안겨주신것만도 하늘같은 은정이건만 자기들의 심정까지 속속들이 헤아려보시고 공동축사까지 건설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에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보답해갈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얼마전 전국의 농촌건설부문 일군들의 참가밑에 본보기로 일떠선 태천군 룡흥농장마을의 공동축사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지금 도에서는 성과와 경험을 더욱 확대하며 농촌살림집구역들에 공동축사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수지선박건조기술 확립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해양공학부 선박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각종 수지선박들을 만들어낼수 있는 설계방법과 건조공정을 확립하였다.

소장 박사 부교수 리영호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여러해전부터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성능높은 수지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문헌연구를 심화시키고 설계정수들을 확정하기 위한 적층시험, 세기시험 등을 수없이 벌리는 과정에 이들은 수지선박의 설계 및 해석체계를 새롭게 연구완성하였으며 현장조건에서도 설계의 기술적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는 건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였다.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형타제작에서도 과학자들은 현장기술자들과 긴밀히 협동하여 원가절약을 위한 수십개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였다.

하여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높은 정밀도와 표면정결도를 보장할수 있는 각종 형타제작기술을 개발도입함으로써 수지선박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수 있는 과학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지금 이 수지선박건조기술은 여러 단위에 도입되여 각이한 형태의 성능높은 고기배들을 계렬생산하는데서 큰 은을 내고있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들을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관철하는데서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올해 국가과학기술성과도입증이 수여되였다.

제 19 차 아시아경기대회소식

-우리나라 체육선수들 6개 세계기록 갱신-

지난 9 월 23 일부터 중국절강성 항주시에서 개막된 제 19 차 아시아경기대회가 10 월 8 일에 페막되였다. 45 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은 높은 체육기술과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성과들을 이룩하고 어머니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크게 떨치였다. 녀자단체 10m 이동목표사격경기에 출전한 공화국의 리지예, 백옥심, 방명향선수들은 높은 사격술과 강한 정신력으로 1 655 점을 획득하여 영예의 제 1 위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창옥선수는 기계체조 녀자조마운동경기와 고저평행봉운동경기에서 각각 14.049, 14.266 의 점수를 받아 제 1 위를 함으로써 금메달 2 개를 쟁취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녀자력기선수들도 세계기록을 여러차례나 갱신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녀자력기 55 kg급경기에 출전한 강현경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03 kg, 추켜올리기에서 130kg 을 성공시켜 종합 233kg 으로 영예의 제 1 위를 쟁취하고 세계기록, 아시아기록, 아시아경기대회기록을 갱신하였다. 녀자력기 49kg 급경기에 진출한 리성금선수도 끌어올리기에서 92kg 을, 추켜올리기에서 124kg (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을 들어올림으로써 종합 216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의 성적으로 영예의 우승자가 되였다.

녀자력기 59kg 급경기에 진출한 김일경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11kg(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아시아

경기대회신기록, 세계청년신기록, 아시아청년신기록)을, 추켜올리기에서 135kg(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 세계청년신기록, 아시아청년신기록)을 들어올리고 종합 246kg(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 세계청년신기록, 아시아청년신기록)의 성적으로 제 1 위를 하였다.

림은심선수도 녀자력기 64kg 급경기에 출전하여 끌어올리기에서 111kg, 추켜올리기에서 140kg 을 성공시켜 종합 251kg 으로 단연 제 1 위를 하고 각각 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녀자력기 76 kg급경기에서 송국향선수 역시 끌어올리기에서 117kg 을, 추켜올리기에서 150kg 을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267kg 의 성적으로 제 1 위를 쟁취하였다.

리청송선수는 남자력기 81 kg급경기에 진출하여 끌어올리기에서 169kg(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을, 추켜올리기에서 195kg 을 성공시켜 종합 364kg(아시아경기대회신기록)의 성적으로 우승하였다.

방철미선수는 녀자권투 54kg 급경기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우승자가 되였다.

레스링 녀자자유형 62kg 급결승경기에서 문현경선수는 일본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수상자가 되였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은 11 개의 금메달과 함께 은메달 18 개, 동메달 10 개, 도합 39 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번 제 19 차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5 개세계기록이 갱신되였다. 그중 우리 나라 체육선수들은 6 개세계기록을 갱신하였다.

공화국선수들이 거둔 경기성과를 두고 외국의 언론들은《신비스러운 팀》, 《실력이 대단하다.》, 《너무 강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한 나라의 책임감독은 《몇년동안 조선팀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감탄을 표시하였다.

제 19 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공화국의 선수들이 거둔 성과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나라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사진우: 안창옥, 강현경, 방철미, 리청송
사진 가운데: 김일경, 림은심, 송국향,
사진 아래: 리지예, 방명향, 백옥심, 리성금, 문현경

国际奥林匹克委员会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우리 나라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에게 올림픽훈장 수여

인디아의 뭄바이에서 진행된 제141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우리 나라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에게 올림픽훈장이 수여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1996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명예위원으로 사업하고있는 장웅명예위원이 체육을 통하여 친선과 리해의 뉴대를 마련한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올림픽훈장은 올림픽운동의 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최고훈장이다.

평양지하철도의 ５０년력사





지하철도를 리용하는 사람은 많아도 언제부터 지하평양이 생겨나 우리 인민의 생활과 인연을 맺게 되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많지 못할것이다.

그 뜻깊은 력사의 날은 지금으로부터 ５０년전인 공화국창건 ２５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던 주체６２(１９７３)년 ９월 ５일이였다.이날 평양의 봉화역앞에서는 온 세계의 초점이 집중되는 가운데 평양지하철도 제１계단개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평양지하철도의 첫 개통이 온 세상에 선포됨으로써 혁명의 수도 평양은 전쟁의 페허속에서 솟아난 기적의 도시, 아름다운 공원속의 도시로만이

아니라 만년대계의 지하궁전을 가진 그 자랑으로 하여 더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지하철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건설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며 만대에 길이 전해갈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첫 개통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평양지하철도의 자랑찬 ５０년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나날 승리할 래일을 확고히 내다보시고 평양시에 지하철도를 건설하여 수도의 교통운수문제를 풀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시기 지하철도건설을 구상하신것만 보아도 우리 수령님은 담대한 배짱과 선견지명을 지니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전쟁이 끝난지 3년밖에 안되였던 주체４５(1956)년 １２월 1일 우리 식으로 지하철도를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만년대계의 방대한 공사를 그 준비단계로부터 마지막완공에 이르기까지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지하철도를 건설할것을 발기하신데는 수도의 교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뿐 아니라 혁명의 수도인 평양을 립체적으로 보다 웅장화려하게 꾸리시려는 웅대한 뜻이 응축되여있었다.사실 그때 평양시는 복구건설단계에 있었고 전쟁시기 소개되였던 기관, 기업소들도 채 집결되지 못하다보니 수도의 교통조건해결을 위해 지하철도까지 건설하는것이 그리 절박한 문제로는 제기되지 않고있었다.

오직 오늘만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모든 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작전하시고 설계하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그때에 벌써 예견성있게 평양지하철도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착실히 하도록 이끌어주실수 있었다.

우리 인민에게 더욱 문명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루빨리 보장해주시기 위해 주체５１(１９６２)년 3월 1일 지하철도건설의 첫 발파소리가 울려퍼진 그때로부터 한달만인 ４월 1일 온통 감탕천지인 험한 공사장을 몸소 찾으신분, 지하철도건설자들이 공사장으로 오르내릴 때 리용하는 수수한 인차를 타시고 석수가 흐르고 발파연기도 가셔지지 않은 지하막장에도 내려가시여 공사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지하철도의 훌륭한 완공을 위하여 현지에서 몸소 시공을 지도하신적은 얼마이며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시기 위해 찾으신 공장, 기업소들과 만나주신 일군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추운 겨울날 뻐스줄에서 전차를 기다리는 인민들의 모습이 그리도 마음에 걸리시여 점심식사마저 미루시며 걸으신 막장길이며 인민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도로선의 위치도 바로잡아주시며 이어가신 밤길을 비롯하여 평양지하철도의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과 로고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이란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세심한 보살피심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부 사람들속에서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２０년, ３０년후에나 가능할 일이라고, 다른 나라의 기술적 및 물질적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던 평양지하철도건설이 우리의 힘으로 완공되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우리의 지하철도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되게 하여주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는 또 얼마이던가.

지하철도를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잘 보장해주는 현대적인 교통수단, 만년대계의 지하구조물로, 훌륭한 사상문화교양장소로 꾸려주시려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

그 나날에는 건설자들이 쓰는 싸리모자를 쓰시고 험한 사갱을 걸어 막장을 찾으신 감동깊은 이야기도 있고 대중의 지혜를 발동하면 좋은 의견이 제기되고 공사를 빨리 할수 있는 방도가 생기는 법이라고 하시며 새로운 굴뚫기방법도 가르쳐주신 사연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하철도건설전반을 직접 지도하신데 대하여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교시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장군님께서 지하철도건설을 위해 기울이신 로고가 얼마나 크나큰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참으로 평양지하철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지하철도건설사상과 방침, 그 실현을 위한 비범하고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고귀한 창조물이며 절세위인들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의 선물이다.

평양지하철도 제1계단개통식이 있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주체６４(１９７５)년 １０월 락원역앞에서는 평양지하철도 제2계단개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주체６７(１９７８)년 9월 광복역앞에서는 평양지하철도 제3계단개통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주체７６(１９８７)년 4월 부흥역앞에서는 제４계단개통이 긍지높이 선포되여 지하평양의 모습이 보다 새롭게 전변되였다.

오늘 지하평양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새시대의 요구와 미감에 맞게 그 모습을 또다시 일신하고있다.

개천절행사 진행



개천절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 반만년의 민족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옳바로 정립해주시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와 귀중한 민족유산들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보금자리인 사랑하는 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부국강병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에 총궐기하여야 하며 자립의 창조정신, 창조본때로 민족사를 빛내이는 성과들을 달성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첨단수술방법 확립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정형외과전문병원 림상 2과 의료집단이 척추외과부문에서 새로운 첨단수술방법을 확립하여 림상실천에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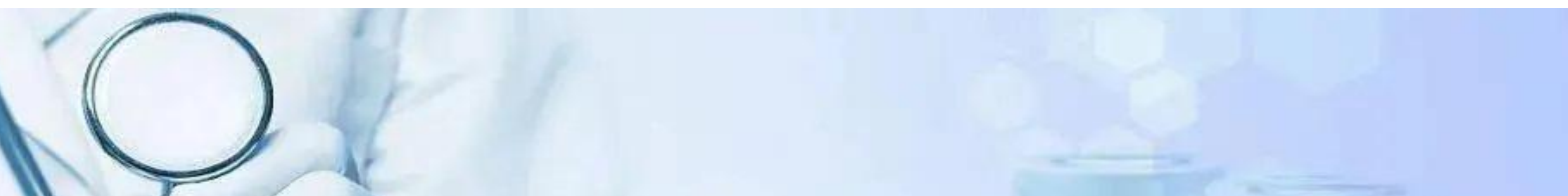
치료방법을 한건 개척해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완성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적극 기여하려는 불같은 지향을 안고 과장 원승권동무를 비롯한 의료집단은 몇해전부터 보건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만 하고있는 최소저침습수술방법을 확립하기 위한데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기울이였다.

수많은 문헌자료들을 탐독하고 림상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의료집단은 척추내시경하수술로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련이어 요추척주관협착증치료에 달라붙었다.

난도높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의료집단은 어려운 모의훈련을 수백건이나 진행하였다.

결과 수술후 환자의 회복기일을 단축하면서도 치료효과를 높이고 합병증과 후유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첨단수술방법을 림상실천에 확립하였으며 의료봉사의 질을 보다 개선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연구성과로 하여 올해 국가과학기술성과도입증을 수여받은 의료집단은 보건실천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의학과학기술분야를 부단히 개척하고 도입하기 위해 계속 분발해나가고있다.



2023 심양시 민족전통문화전시공연행사 성대히 개최



9 월 30 일, 심양시문화관광방송국, 심양시민족종교사무국이 주최하고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주관한 2023 심양시 민족전통문화전시공연행사가 심양시조선족제 1 중학교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였다. 심양시민족종교사무국 당조서기 조정동이 축사를 하고 심양시문화관광방송국 당조서기, 국장 류극빈이 개막을 발표했다. 심양시민족종교사무국 관염평 부국장, 심양시공공문화서비스센터 당위서기 소영을 비롯한 관련부문 령도들과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박석호관장, 료녕성조선족련의회 리홍광회장, 심양시조선족련의회 길경갑회장, 료녕성조선족기업가협회 강학원회장, 중국조선족장기련합회 회장단 류상룡회장 등 사관계자 및 700 여 명의 여러민족 군중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심양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처음으로 개최한 전시범위의 민족 문화 행사이자 심양시의 18 번째 '민족단결진보선전의 달' 시리즈 행사 중 하나로 20 차 당대회의 정신과 습근평총서기의 문화전승 좌담회 연설 정신과 제 5 차 중앙민족공작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심양시위와 시정부의 민족 문화에 관한 업무 배치를 성실히 리행하며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여러 민족간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고 심양시 여러 민족 대중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주요취지로 했다.행사는 민족전통기술, 민족전통체육 및 유희경연대회, 민족전통음식전시 등 32 개 세부종목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유산종목, 민족전통기예전시공연과 무형문화유산 경기종목, 민속전통경기종목의 두 가지 주요 행사로 설정되였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2023 심양시조선족민속장기대회도 펼쳐졌다. 6 명의 프로기사를 포함한 30 여명의 심양시조선족기류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5 륜적분순환경기를 진행한 결과 류상룡 9 단이 우승을 차지하고 리대이, 리종일, 등국룡, 리성국, 방철학, 최일동, 리춘산이 2-8





등을 차지했다. 중국조선족장기련합회 회장단 류상룡회장은 조선족민속장기가 심양시정부에서 조직한 계렬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되여서 너무나 뿌뜻하고 자랑스럽고 자호감을 느낀다며 조선족민속장기는 이미 정규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각급 정부와 사회각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며 성급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여 후대양성 사업을 통한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고 강조, 그동안 조선족민속장기의 발전에 기여한 각급 령도들과 기업인들, 회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향후 공동한 노력으로 조선족민속장기의 활성화에 기여해줄것을 부탁했다.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박석호관장은 심양시위, 시정부 및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되여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민족문화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문화적정체성을 강화하며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진종호 기자 사진 심양시조선족기류협회 제공



단동시 제 38 회 조선족 민속유원회 2,000 여명 몰려

단동시 제 38 회 조선족 민속유원회 2,000 여명 몰려 10 월 11 일, 근 40 년 전통을 이어온 '단동시제 38 회 조선족 민속유원회'가 신구 열강산(阅江山)공원에서 개최됐다. 유원회는 단동의 지역풍정과 조선족 전통문화를 과시했다. 단동시조선족문화예술관 전림 부관장은 "단동시 조선족사회가 일심동체로 단동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조선족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전승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했다.

유원회에서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단동조선족환갑례', '가면춤'을 포함해 성급 무형문화재, 시급 무형문화재 등이 전시되였고 민악, 민족무용 등 신명나는 공연으로 조선족 전통가락의 흥과 멋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또 조선족장기, 윷놀이, 바줄당기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 전통경기로 재미를 더했다. 출처:료녕신문



2023중국조선족복식대회 화려한 막 내려



10 월 23 일,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 관광국에서 주최한 2023 년 중국조선족복식대회 현장 결승전이 연길시문화관에서 펼쳐졌다.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대회에 참석했다.

'연변에 대한 인식, 연변에 대한 사랑, 연변에 대한 홍보'를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는 우리 주 관광열기를 더한층 향상시키고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변 민족특색과 민속문화, 민속풍정을 깊이있게 체험하면서 연변의 우수한 생태환경, 특별한 민족 특색과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대회는 두 단계로 나뉘여 진행되였는데 9 월 18 일-10 월 16 일은 제 1 단계의 온라인 선발경연을 치르고 제 2 단계는 현장 결승전이다. 이날 현장 결승전을 거쳐 북경에서 온 1 인 미디어 블로거인 애순각이 1 등상을, 흑룡강성에서 온 장낙연이 2 등상을, 룡정시의 최미연이 3 등을 수상했다.

현장에서는 또 '조선족복식 추천관', '최고 복식상', '최고 촬영상', '최고 메이크상', '최고 디자인상' 등 온라인상을 공포했다.

대회는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틱톡 플랫폼의 '조선족복식' 관련 화제 조회 수는 8000 만건 이상, '연변에 모인 조선족 공주' 관련 화제 조회 수는 2000 만건 이상, '조선족복장' 관련 화제 조회 수는 9.1 억건을 돌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규탄하는 교원들의 투쟁 확대

지난 21 일 괴뢰언론 《헤랄드경제》, 《뉴시스》 등이 전한데 의하면 이날 서울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교육정책》을 단죄규탄하는 교원들의 투쟁이 진행되였다.

검은 옷을 입은 교원 20 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뢰경찰이 《서이초등학교》 교원



사망사건이 발생한후 두달이 넘게 수사를 벌렸다고 하지만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에 들어갔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교원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수 있다.》, 《서이초등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고통으로 세상을 등진 교원들의 사망은 공무상재해로 인한 죽음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권보호 4 법》만으로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오는 28 일 괴뢰국회청사앞에서 《교원총궐기》집회를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괴뢰국회앞에서 1 500 여명의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들의 참가하에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역적패당의 《유보통합(유아교육 및 보육통합), 늘봄학교정책》페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정권이 유보통합예산을 0 원으로 책정하고 교원수는 줄이면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고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추진을 유치원 및 초등, 중등교육예산에서 떼여내여 하겠다고 한다.》, 《보육을 살리려다가 유아교육과 초등, 중등교육이 폭망할 지경이다.》라고 폭로하였다. 이어 《늘봄학교는 옳바른 수요조사도, 공간확보도, 계획도, 학생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채 추진되였다.》, 《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돌봄은 학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류명호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기 힘들어
이 말은 하기 부끄러워
동네아이들이 아버지자랑 할 때면
나는 저멀리 강가에 홀로 서있었다.
나에겐 아버지자랑 할게 없어서
무릎바지 입고다니던 소학교 그 시절
아버지는 뭘 하시는가고 묻는 선생님물음에
우리 아버지는 승용차를 탄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번에 왕별을 달았다고
학급동무들이 저저마다 아버지자랑 할 때면
나느 죄를 지은것처럼 머리를 수그렸다.
나의 아버지는 그냥 로동자여서
...
오, 그날은
내가 아버지자랑에서 이긴 그날은
어버이 수령님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여
장알박힌 아버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로동계급의 손은 보배손이라고
우리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그날부터였어라
나는 학교에서 마을에서 자랑했어라
수령님께서 나의 아버지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승용차도 왕별도 로동자다음에 있다고

로동자의 이름은

수령님 계시여 빛나는 내 조국의 자랑

로동자의 삶은

수령님과 떨어져선 순간도 못사는 운명이여서

...

나는 자랑했어라

병사시절 명사수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도

김일성종합대학의 높은 언덕에 올라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도

나느 소리높이 웨쳤어라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박사가 되고

영웅이 되고

인민배우가 되는

그런 인간존엄의 높은 연단에서

나는 자랑했어라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라고

이 말을 하면 잠자던 열정도 솟구치고

이 말을 하면 삶의 걸음새도 변함이 없어

나는 늘 마음속으로 이 말을 외운다.

위대한 수령님 뜻 받들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정다할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

주체 99(2010)년 창작

“生命星球·粉红有嘉”慈善音乐会在上海成功举办

原创能量中国

能量中国·中国发展网传播矩阵（通讯方圆）在充满爱与关怀的秋日下午，以女性关爱为主题的慈善音乐会在上海成功举办。本次音乐会由女高音歌唱家韩善女教授与钢琴家徐庚延教授、低男中音歌唱家金学俊教授、男高音歌唱家南松、男高音歌唱家车海龙共同呈现，旨在通过音乐的力量，提高社会各界对健康的关注。

据悉，此次音乐会由上海现代服务业联合会医疗服务专业委员会、上海市慈善基金会生命星球专项基金、人民能量公益活动工作指导委员会、剧团哇音、嘉会医疗等单位联合主办，由上海 YOUNG 剧场、能量中国、BANG！Media、玩趣天下、延边州政府、延边歌舞团、延边音乐家协会等单位支持。

人民能量负责人王方圆在音乐会开始前，对民盟中央社会委员会副主任、上海妇联原副主席、上海市儿童基金会理事长黄绮，环球小姐 2016 年冠军、生命星球爱心大使李珍颖女士，中国著名女中音歌唱家王维倩女士等应邀出席的嘉宾以及以色列驻沪总领事馆、美国加利福尼亚州旅游会展局上海办、瑞士琉森旅游局、美国亚利桑那州旅游局、冲绳县政府上海事务所、希腊中希商会、西班牙商会、上海冰雪协会等单位代表表示感谢。

上海医学院副院长，现代服务业联合会医疗服务专业委员会主任朱同玉进行音乐会的开幕致辞，他对韩善女教授等艺术家的善举表示感谢，对到场的单位及嘉宾表示欢迎，他呼吁社会各界通过此次音乐会共同关注人民群众的健康问题，以公益的形式营造更好的健康生活环境。

艺术家们以《10 月的某个美丽的一天》曲目开场，不仅是对国庆的一种致敬，更是对音乐会背后深沉而宏大的主题——关爱与慈善的呼应。这首曲目在深情的演绎中，将每一个音符都注入了情感与力量，让在场的每一位听众都能感受到那份来自艺术家内心的音乐力量。

接下来的演出中《我像雪花天上来》、《雪》、《初恋》等民族歌曲，以其独特的韵味和深厚的文化底蕴，打动了每一位听众的心。这些曲目不仅展现了艺术家们卓越的演唱技艺，更通过音乐传达出了一种对传统文化的尊重和传承。而《在水一方》等中文曲目的演绎，则以其深情的旋律和富有感染力的演唱，引起了在场听众的共鸣，也让我们看到了中华文化在国际舞台上的独特魅力。

韩善女教授的《长鼓啊敲起来》等曲目的演唱，更是让我们深刻体会到了艺术的魅力。她的声音，宛如天籁之音，清澈而深远，她的每一个音符，都仿佛在诉说着一个个美丽的故事，让我们在音乐中感受到了生命的力量和希望。

而在《Nessun Dorma（今夜无人入睡）》、《Votre toast,je peux vous le rendre（斗牛士之歌）》、《Volare（快乐飞舞）》、《Funiculi funicula（登山缆车）》等歌剧曲目的演唱中，艺术家与听众们的互动更是将现场的气氛推向了高潮。这些经典的歌剧曲目，以其宏大的气势和深情的演绎，展现了艺术家们卓越的艺术造诣和深厚的艺术修养。在音乐的海洋中，艺术家与听众们一同沉浸，一同飘荡，感受那来自音乐的无尽魅力和力量。

这场音乐会，不仅仅是一场听觉的盛宴，更是一场灵魂的洗礼，让我们看到了艺术的力量，感受到了音乐的魅力，也让我们认识到，关爱与慈善可以穿越音符，流淌在每一个旋律之中，温暖着每一个倾听的心灵。在这里，我们看到了艺术与爱的完美融合，也看到了一个更加美好的未来，那里充满了希望，充满了力量，充满了爱。

在《红太阳照边疆》的优美旋律中，环球小姐冠军、





生命星球爱心大使李珍颖，生命星球专项基金理事张梓轩，人民能量负责人王方圆及活动爱心志愿者向艺术家献上鲜花，对他们的善举致以崇高的敬意。

生命星球·粉红有嘉”音乐会不仅是一场艺术的盛宴，更是一场深具意义的社会公益行动。音乐不分国界，同样，健康也是全人类共同关注的议题，每一个音符、每一个旋律，都成为了传递爱与关怀的使者，让每一位在场的观众感受到了音乐的力量和温暖的关怀。而对于那些正在与疾病抗争的女性而言，音乐会更是一个精神支柱，给予她们勇气和希望。

此次音乐会邀请了 100 余位乳腺癌患者到现场参加，希望能够向她们传递生活的希望和力量。

韩善女教授表示，此次音乐会不仅是为了展现美妙的音乐，更是为了传递一份深切的关爱，每一个音符背后，都承载着我们对公益、对健康的关注和对生命的尊重。她呼吁，更多的社会力量加入到关注健康的行列中来，共同努力为健康事业的发展注入更多的活力和希望。

此次音乐会总导演崔星辉表示，艺术并非遥不可及的高雅，而是深植于我们的生活之中，就像此次活动关注的健康议题一样，关乎每一个家庭和个体，艺术能够唤起我们内心深处的共鸣，能够激发我们的爱与善良。他向每一位到场的嘉宾以及相关单位表示感谢，他期待这场音乐会能够成为一个新的起点，引领我们走向一个更加美好的未来。



조선족 퉁소음악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여생을 불태우는 사람

연길시민속퉁소협회 부회장, 연길시문화관 퉁소대 대장 조동수의 이야기

매주 월,수,금 3일 동안은 연길시문화관 퉁소대 대원들의 민속퉁소연습일이다.

날이 갈수록 사라지는 우리 민족의 전통악기인 민속퉁소음악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30여명의 퉁소대 대원들이 매주 세번씩 이곳에 모여 서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민속퉁소음악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로년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 선두에 서있는 사람이 바로 연길시문화관 퉁소대의 대장인 조동수(67세)씨였다.

“현재 날이 갈수록 전통문화의 충격과 전승인들의 로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조선족 퉁소

음악은 매우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면서 조동수씨가 첫 마디로 한 말이다.

통소는 굵은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세로로 부는 악기로 소리는 호소하는 듯하고 애수적이면서도 격양되고 분방한 희로애락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난 2008년 6월에 연길시와 훈춘시에서 신청한 ‘조선족퉁소음악’은 제2진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였다.

조동수문화관과 연길시문화관이 ‘조선족퉁소음악 대상 보호단위’ 자격을 가지였다. 이와 함께 연길시 문화관의 홍미선 관장과 남향란 부관장, 그리고 연길시 퉁소협회 리호성회장 등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지난 7월에 연길시문화관 퉁소대가 설립되였고 조동수씨가 퉁소대 대장을 맡으면서 민속퉁소음악의 전승과 발전의 중임을 맡고 있는 상황이였다.

“오늘 이 시간에는 퉁소음악의 최고명곡인 <풍전산곡>을 계속해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씨가 30여명 대원들을 상대로 연습의 시작을 알리자 연주자들의 퉁소들에서 터져나오는 특이하고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이 창밖의 푸른 가을하늘과 더불어 옛추억처럼 한가득 밀려들어왔다.

조동수씨가 퉁소를 처음 접했던 때는 지난 세기 70년대 중반, 그가 고중을 졸업하고 화룡현 와룡공소사 갑산분점에서 점원으로 일할때 부터였으니 근 50년전의 일이다. 당시 팔가자림업국 선로공정대의 운전수였던 김승길이라는 사람이 마을에 묵고 있었는데 그가 대퉁소와 단소를 잘 다루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흥겨운 퉁소소리가 마을상공에 울려퍼졌고 하루일에 지친 사람들은 그 유난히 구성진 퉁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의 정취를 느껴보았던 그 시절, 허다한 농촌마을들에서 흔히 볼수있었던 풍경이였다.

조동수씨가 퉁소에 흥미를 느끼니 김승길이 그를 제자로 삼고 퉁소를 배워주었고 나중에는 자기의 퉁소와 단소를 모두 선물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겨우 연주의 기본인 ‘도레미’ 정도나 익혔고 <아리랑>이나 <도라지> 등 간단한 노래 몇수만 연주하는 서툰 솜씨였다. 그러다가 조동수씨가 와룡공소합작사를 떠나 화룡이며 연길 등지로 일자리를 옮겨 사업에 바삐 돌아치다나니 그후로는 퉁소를 아예 잊고 살수밖에 없었다.

조동수씨가 다시 퉁소를 접하게 된것은 그가 퇴직을 하고 난 후인 지난 2019년의 일이였다. 연길시 진달래광장부근에 살고있는 조동수씨는 어느 하루 진달래광장에 산책나갔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성진 퉁소소리를 듣게 되였다. 추억의 그 소리를 따라 퉁소부는 한 로인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금 50여년전 20대 청년시절에 꿈을 안고 불어보았던 퉁소를 떠올리게 된 것이였다.

당시 진달래광장에서 퉁소불던 로인은 비닐로 만든 가락이 달린 퉁소를 불고 있었는데 퉁소는 맞지만 비닐로 만들어졌고 또 가락까지 있기에 신기해서 로인이 알려주는 구입처와 련락해서 똑같은 퉁소 하나를 사서 불어보았다. 그런데 비닐퉁소는 얼마 못가 가락에 고장이 생기면서 수리해야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여버렸다. 판매처에 가서 고쳐오면 또 얼마 못가 자꾸 고장나는 바람에 조동수씨는 사람손이 많이 가야하는 가락달린 비닐퉁소에 회의감을 느꼈다. 퉁소에서 나오는 소리도 참대로 만든 퉁소에 비해 맑지 못하고 차하다는 것도 차츰 느끼게 되였다.

제대로 된 퉁소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무슨 일이나 도전하면 꼭 해내고야 마는 성미인 조동수씨는 퉁소만드는 일에 직접 나섰다. 사비를 털어 퉁소제작에 필요한 각가지 도구들도 사들였고 항주에서 퉁소제작용 참대들도 구입해 들였다.

퉁소제작에는 문외한이였으나 많은 자료들과 이미 만들어진 퉁소들을 앞에 놓고 연구하면서 퉁소를 만들어 보았다. 일반적인 퉁소는 고음 ‘레’까지 음을 내는 것이 정상인데 고음 ‘미’까지 음을 내는 퉁소로 연주된 퉁소음악이 최고의 퉁소음악으로 꼽힌다.

한번은 함께 퉁소를 배우는 김동권씨가 조동수씨에게 음악CD씨디 한장을 얻어다 주면서 들어보라고 했다. 김철호, 최민, 조영권, 오청룡, 신용춘, 김래억 등 연변의 유명한 퉁소연주가들이 연주한 곡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이였다. 그런데 퉁소음악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인 조동수씨가 듣기에도 그중의 한 퉁소음악곡이 너무 소리가 좋고 구성져서 알아 보았더니 바로 훈춘시의 유명한 퉁소음악연주가인 김철호 선생의 연주곡이라는 것이였다. 김철호선생의 퉁소에서는 희한하게도 고음 '미'까지 나오는 것이였다.

당시 훈춘시문화관에서 퉁소음악을 가르치던 김철호선생은 연변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두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유명한 퉁소음악연주의 권위자였다. 연변에 이렇듯 훌륭한 퉁소음악 장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난 조동수씨는 사처에 련락해 김철호선생과 련락을 취하고 찾아가서 만나뵙고 가르침 받기를 간청했다.

하도 끈질기게 졸라댔더니 결국은 김철호선생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다. 조동수씨는 지체할세라 곧바로 김철호선생의 댁에 직접 찾아가서 선생의 퉁소를 자세히 연구했다. 퉁소의 내경과 외경, 길이는 물론 구멍의 크기, 구멍사이의 거리와 깔청까지 자세히 연구하면서 좋은 퉁소에 숨겨진 비밀을 찾았다.

김철호선생의 퉁소는 일반적인 퉁소의 길이인 67센치보다 68~69센치로 좀 더 길었는데 내, 외경의 구멍에 따라서 퉁소의 길이가 변화했다. 이 기초상에서 69~70센치의 길이에 외경 3.2센치메터 좌우, 내경 1.9센치메터좌우로 조절하니 모든 음이 표준적이고 고음이 잘 나왔다. 깔청도 천연적인 수입재료를 쓰니 소리가 더욱 맑고 고르로왔다.

표준적인 음이 나오는 퉁소의 규격을 연구하기까지 조동수씨는 300여원하는 퉁소 3개나 사서 직접 해부해보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좋은 음이 나오는 퉁소의 규격과 수치, 그리고 지식들을 장악한후 조동수씨는 본격적인 퉁소제작에 달라붙었는데 아니나 다를가, 만드는 퉁소마다 정품퉁소로 되여 퉁소연주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퉁소연주애호가인 김동권씨는 조동수씨가 만든 퉁소는 일반 퉁소들이 낼수없는 고음 '미'까지 음을 낼수 있기에 연주자들사이에서 그 인기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현재 조동수씨는 자신이 직접 퉁소를 만들뿐만아니라 퉁소애호가들의 퉁소를 다시 고쳐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 3년동안 그가 직접 만들고 또 수리해준 퉁소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 그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쓰면서 퉁소애호가들의 퉁소를 고쳐주고도 1전 한푼 받지 않았고 퉁소애호가들이 수고비라도 드릴라치면 돈을 바라고 퉁소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군한다.

마음에 드는 퉁소를 만들수 있게 되자 조동수씨는 이젠 퉁소연주에 달라붙었다. 만들 줄도 알아야 하지만 불 줄도 알아야 퉁소음악의 전승과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였다.

조동수씨는 김철호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퉁소연주에서 지법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웠다. 연길에서 차를 운전해 먼길을 달려 훈춘까지 퉁소배우러 다니는 조동수의 직심적인 배움의 태도와 뜨거운 열

정에 마음이 열린 김철호선생은 자신의 다년간의 노하우와 연주기법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

일이 될라고 그랬던지 2022년 5월 김철호선생이



훈춘에서 연길로 이사왔다. 그것도 부르하통하를 사이에 두고 다리 하나만 건느면 될 가까운 곳에 계시다보니 조동수씨는 '목마른 사람이 물마시듯' 매일이다싶이 김철호선생댁에 가서 허심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우수한 스승에 못난 제자가 없다' 고 조동수씨의 퉁소연주 수준도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믿고 따르면서 존경하던 김철호선생이 연길에 이사온지 불과 반년도 못되여 2022년 10월에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조동수씨는 애석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했다. 김철호선생은 생전에 수많은 우수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셨지만 선생이 돌아가시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받은 제자가 조동수씨이니 그 애석함은 더하다고 조동수씨는 지금도 슬픈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조동수씨는 김철호선생이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도 자신의 기술을 더 많은 후배들에게 전수하지 못해 안타까워 하신 점을 떠올리면서 선생이 채 하지 못한 조선족 퉁소음악의 전승과 발전에 자신이 제자로서 응당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늘 자신을 채찍하고있다고 터놓았다.

조동수씨에 따르면 세계적인 퉁소음악의 명인이고 1인자라고 불리우는 김철호선생은 일찍 10대때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고 훌륭한 음악지휘자, 편곡가로 퉁소만 60여년을 연주하신 음악적인 천재이다. 그의 제자인 최민은 전국퉁소경연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현재 남조선에서 세계적인 연주가로 명성을 떨치고있는 저명한 음악인이다.

김철호선생은 생전에 <풍전산곡>등 퉁소음악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퉁소연주곡 12편이나 편곡해 세상에 남겼다. 또한 훈춘에서 27년간 거주하면서 훈춘시는 물론 중국조선족 퉁소음악예술의 전승과 보급에 큰 기여를 했고 조선족퉁소음악의 기념비적 인물이기도 하다.

조동수씨에 따르면 김철호선생의 생전 허다한 음악자료들과 설비들을 조동수씨가 물려 받았다. 조동수씨는 선생의 생전 자료들과 편곡을 현재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다면서 선생이 남기신 유언대로 더 많은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퉁소음악연주를 익히고 또 널리 보급하는 것도 스승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뜻이라고 말했다. 스승의 높은 수준과 경지에까지 갈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아득하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분투하면서 스승에 한점 부끄럼없는 제자로 남고 싶다고 조동수씨는 늘 입버릇처럼 말한다.

조동수씨는 현재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있다. 조동수씨한테 찾아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반까지 퉁소연주를 배우고있는 김광호(73세)씨는 조동수선생은 덕과 기술을 모두 갖춘 분이라고 하면서 조동수씨가 요즘같은 물질만능의 시대에 자신의 경제적인 리익을 제쳐두고 퉁소음악의 보급과 전승을 위해 여생을 불태우고 있는 것에 내심 감복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동수씨는 자신이 김철호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운 음악인의 덕과 기술을 다시 베풀고 있는 것 일뿐이라고 겸허하게 말했다.

"김철호스승님에게 느낀바가 크지만 스승은 제자들에게 방향과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음악인으로서의 더 높은 발전과 성취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에 달렸지요" 조동수씨의 허심탄회한 속심말

김철호 (오른쪽) 스승님을 모시고 남긴 사진



이였다. 그는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퉁소를 초학자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배웠다면서 연길시문화관 퉁소대의 많은 분들도 모두 뒤늦게야 배움의 길에 올랐지만 모두 매우 잘하고 있다고 강조, 배움의 길에는 영원히 나이가 상관이 없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부언하기도 했다.

"저는 모든 일에서 최고를 고집하고 싶습니다. 퉁소음악의 전승과 발전에 있어서도 연길에서 최고, 전주에서도 최고로 된 퉁소음악인들의 모임을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민속퉁소협회는 물론, 연길시 문화관에서도 우리 민족의 퉁소음악을 위해 우리 퉁소애호가들에게 훌륭한 활동장소까지 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주고있는데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해야지요…"

조동수씨가 이끄는 연길시문화관 퉁소대는 설립된지 이제 겨우 두달밖에 안되지만 청년호광장 공연 2차, 주로년협회가 협찬한 량전백세 퉁소공연, 된장축제 퉁소공연, 화룡시 진달래촌에서의 퉁소공연, 모드모아관광리조트에서의 퉁소공연 등 연변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에 참가하여 멋진 퉁소음악 공연들을 선보여 환영을 받았다.

연길시민속퉁소협회 리호성 회장에 따르면 설립된지 6년철을 잡는 연길시민속퉁소협회 산하에 연길시문화관 퉁소대를 비롯해 6개의 퉁소대들이 있고 전시적으로 20여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퉁소모임들이 있다. 과거 연길시의 대부분 퉁소모임들은 흩어져 있었고 저마끔의 나름대로의 퉁소음악의 길을 걷고있었다. 이에 따라 리호성회장은 더 많은 퉁소인들이 연길시민속퉁소협회에 가입하면서 집중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퉁소연주를 배우고 있고 흩어져있던 퉁소음악인들이 똘똘 뭉쳐 우리 민족의 더 높은 수준의 민속퉁소음악예술의 전승과 발전을 시도하는 노력들을 부단히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인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퉁소음악의 로령화추세를 감안해 우리의 민속음악을 이어나갈 후생력량의 배양을 위해 여러 학교들에 민속퉁소를 보급시키려 적극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를 마치고 연길시문화관을 나서는데 구성진 우리 가락의 멋과 맛을 가득 품은 퉁소음악의 아름다운 가락이 유난히 높고 푸른 가을하늘에 울려퍼진다. 문득 아름답고 흥 겨운 퉁소음악이 마을마다 가득 흘러넘치던 오래전의 옛 정취와 풍경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우리 가락과 우리의 멋을 자랑하는 문화적인 풍경들이 서로 어우러진 삶의 풍경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꾸어 나가야 할 아름다운 삶의 락원이 아닐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길림신문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4 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총서기동지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형제적인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창건후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지난 10 여년간 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의 기치밑에 전당과 인민을 단결분발시켜 당과 국가건설위업에서 괄목할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모든 성과들에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형제적중국인민이 총서기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중 두 나라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장구한 행로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지지성원하여왔습니다.

나는 총서기동지와 함께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들어선 조중친선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공고발전시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총서기동지가 건강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중국인민의 행복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2(2023)년 10 월 1 일
평 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를 7일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이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도 전달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3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에 화환 진정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3돐에 즈음하여 25일 우의탑에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우의탑에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문성혁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왕아군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체류중 중국손님들, 화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우의탑에 진정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외무성, 대외경제성, 문화성의 명의로 된 화환들,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들,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를 지니고 제국주의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성전에서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며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우의탑을 돌아보았다.

이날 평양시 형제산구역, 평안남도 안주시, 회창군, 함경북도 온성군과 개성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 렬사묘들에도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중친선의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

지금으로부터 73 년전인 1950 년 10 월 25 일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전선에 참전하였다.

건국초기의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중국의 당과 정부,인민이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한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와 동지적협조의 뚜렷한 과시였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의 투쟁속에서 맺어진 두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을 계기로 더욱 두터워졌다.

조선전선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가렬처절한 전투장들마다에서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족쳤으며 귀중한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황계광, 리가발, 허가붕용사들, 총탄,수류탄이 떨어지고 지휘부와의 통신이 끊어지자 폭약에 불을 달고 적들속으로 몸을 날린 양근사영웅,중상을 당한 몸으로 수류탄을 안고 적땅크밑으로 기여들어가 육탄으로 땅크를 까부신 강세북용사 등 수많은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며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기였다.

조선전선에 용약 달려나온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전투장들마다에서 무비의 위훈을 떨쳤을





뿐 아니라 우리 인민과 친혈육의 정을 뜨겁게 나누면서 조중친선의 뉴대를 두터이 하였다.

얼음구멍에 빠진 조선소년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라성교렬사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의 아들딸들이 총포탄이 비발치는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주었으며 조선인민을 친부모형제와 같이 여기면서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우리 인민은 이런 지원군장병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면서 그들을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였다.

조중 두 나라는 굳게 단결하여 조선전쟁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였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공동의 투쟁속에서 희생적으로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불멸의 공적과 영웅적위훈을 잊지 않고있다.

조중친선관계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함께 싸운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동지적관계이다. 조중친선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선렬들의 위훈을 잊지 않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굳건히 이어가는것은 오늘 조중 두 나라 인민들에게 지워진 력사적사명이다.

력사의 모진 풍파를 이겨낸 두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전투적우의를 귀중히 여기고 변함없이 계승해나갈 때 두 나라 인민의 자주적발전은 더욱 힘있게 추동될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굳건해질것이다.(끝) / 조선중앙통신

중국소식

zhongguoxiaoxi

제19기 아시안게임 항주에서 원만히 막을 내려

리강 페막식에 참석



항주 10월 8일발 본사소식: 즐거움과 생기로 넘치는 아시안게임의 가장 눈부신 이벤트행사가 진행되였다. 8일 저녁, 제19기 아시안게임이 항주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다. 국무원 총리 리강이 페막식에 참석했다.

지난 16일 동안 아시아주의 45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1만여명의 운동선수들이 이곳에서 단합하고 교류하면서 우정을 쌓았고 분발정진해 자신을 초월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루계로 세계기록, 아시아주기록, 아시안게임기록을 각각 15번, 37번, 170번이나 돌파했는바 운동선수 모두가 아시아주체육의 새로운 휘황과 영광을 함께 창조했다. 중국은 '록색, 지능, 근검절약, 문명'이라는 개최리념을 견지하고 일류의 체육장(관) 및 시설과 뛰여난 서비스들을 마련함으로써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국제사회로부터 널리 호평을 받았다. 중국체육대표단은 금메달을 201매 따내고 메달을 총 383매 따냈는바 이는 중국이 아시안게임 참가이래 가장 좋은 성적이며 중국은 아시안게임에서 련속 11번이나 금메달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날이 저문 후 전당강 강반에 자리잡은 항주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장은 조명장식에 의해 아름다운 련꽃만 같았다. 체육장에서는 다채로운 가무공연과 함께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아시아주 각국과 각 지역에서 온 운동선수들이 이곳에 모여 그들만의 체육문화축제를 함께 즐겼다.

즐겁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리강,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의장 대행 라자 란디르 싱 등이 주석대에 올라 관중들을 향해 손을 저으며 인사를 했다.

20시경, '잊지 못할 항주'를 주제로 한 페막식이 시작되였다. 모두가 일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부르며 오성붉은기가 서서히 게양되는 것을 바라보았다.

대형 스크린에 오프닝영상 <아시안게임, 환희의 물결>이 방영되면서 흥겨운 노래소리와 함께 페막식 공연이 시작되였다. <빛나는 이 시간을 함께> 프로그람에서는 AR기술을 통해 'Asia'로고가 강에서 용솟음쳐 전당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대회 현장에 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구사했다. 디지털잔디에는 19개의 대형 계수꽃과 그 주위를 장식하는 눈부신 꽃들, 'Asia'라는 글자가 적

힌 차대들이 활기넘치는 '아시아정원'을 구성했다. 힙합댄스(街舞) 소년들, 무대 연기자들은 흥겨운 노래와 춤을 선보였고 스포츠배우들은 다양한 운동자세를 보여주었으며 마스코트 '강남억(江南忆)'은 신나는 춤을 추며 장내를 뜨겁게 달구었다.

각 선수단의 기발과 선수대표가 입장하자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체육 건아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했다.

영상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는 아시안게임 경기에서의 멋진 장면들을 재현했다. 프로그람 <하계공생휘(련꽃, 계화꽃 만개의 모습)>가 시작되면서 분투와 영광을 상징하는 '아시안게임 기억이 꽃'이 피여올라 '꽃을 꺾어 친구에게 선물하는(攀花赠友)' 영원한 우정과 화합공생의 아름다운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는 승리와 패배, 감동과 유감, 단결과 우애, 웃음과 눈물 등 감동적인 장면들을 낱낱이 담아냈다.

항주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 중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고지단은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간절한 기대와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우리는 '중국특색이 있고 아시아의 멋을 자랑하며 다채로운' 아시안게임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장엄한 약속을 리행했다.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촉진하고 단합을 촉진하며 포용을 촉진하고 힘을 합쳐 아시아운명공동체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의장 대행 란디르 싱은 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잊지 못할 만큼 멋지고 성공적인 대회였다. 중국정부, 중국올림픽위원회, 항주시민과 항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준비에 감사드린다. 싱은 제19회 항주아시안게임의 폐막을 선포하고 3년 뒤 아이치와 나고야 제20회 아시안게임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노래와 함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기발이 천천히 내려졌다.

이어 대회기 이양식이 열렸다. 항주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부주석 겸 비서장, 항주시 시장 요고원은 제1회 아시안게임 성화와 올림픽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기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의장 대행 싱에게 넘겨주었다. 싱은 제1회 아시안게임 성화와 회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기를 차기 대회 개최지인 일본 아이치현의 오무라 히데아키 지사와 나고야 시의 나카타 히데오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일장기를 게양하고 일본 국가를 연주한 뒤 아이치현과 나고야시는 8분간 화려한 문예공연을 펼쳤다.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취를 자랑하는 영상 <잊지 못할 항주>에서는 석별을 주선으로 외국 관광객,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항주 시민을 주요 인물로 내세워 그동안의 시간을 그리면서 손을 흔들고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담았다.

21시 16분, 개막식에서 성화점화를 한 '디지털성화주자'가 재등장했고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소청하' 대표, 아시안게임의 각 분야 참가자 대표들이 성화 앞으로 다가가 성화가 꺼지는 순간을 함께했다. 불꽃이 서서히 꺼지면서 디지털성화주자는 먼 곳을 향해 별이 되여 아시아를 향해 흩어지고 만가를 환하게 비춰주었다.

찬란한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항주, 녕파, 온주, 호주, 소흥, 금화 6개 경기개최도시를 상징하는 꽃차퍼레이드가 시작되였다. 노래소리, 박수, 환호성이 울려퍼져 장내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기쁨의 바다에서 사람들의 마음히 한데 어우러지며 함께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우즈베끼스탄 총리 아리포프와 동티모르 부총리 리파팡등 국제 귀빈이 페막식에 참석했다.

오정륭, 심이금이 페막식에 참석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관계자 등이 페막식에 참석했다.



10배 빨라져! 화웨이 세계 최초 5.5G 해결방안 발표

최근 2023 세계모바일광대역포럼 기간에 화웨이는 세계 최초의 5.5G 제품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이 일련의 제품 해결방안은 광대역, 다중주파수, 다중안테나, 스마트 및 록색 등 분야의 혁신을 통해 10배 네트워크 능력을 제공하게 된다.

5.5G는 5G와 6G 사이의 과도단계로 5G 사업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가 계속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통신기술은 5G 응용정경을 강화하고 확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5.5G는 하향 및 상향 전송속도에서 5G에 비해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네트워크 접속속도는 10Gbps(초당 10G 비트, 다운로드속도 초당 1.25G로 환산)에 도달하고 밀리초급의 시간지연을 보장한다.

국제표준기구의 3GPP 정의에 따르면 5G에서 6G 사이에는 R15에서 R20의 6가지 기술표준이 있으며 그중 R15에서 R17은 5G 표준의 1단계, R18에서 R20은 5G 표준의 2단계이다. 2021년 4월, 5G 국제표준 제정기구 3GPP는 공식적으로 R18 협정버전을 5.5G로 정의했으며 이는 5G 진화에 대한 수요가 업계의 공동인식이 되였음을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중국 IMT-2020(5G) 추진팀과 운영상이 5.5G 혁신연구 및 테스트검증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현재 핵심기술 혁신에서 점차 응용정경을 향한 산업간 협력 혁신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지난해 중국 출생인구 956만명에 달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0월 12일2022년 우리나라 위생건강산업발전에 관한 통계공보(이하 <공보>라고 략칭)를 발표했다.

2022년, 우리 나라 위생건강사업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출생인구는 956만명에 달했다.

2022년 출생인구중 둘째아이가 38.9%를 차지하고 셋째아이 및 이상이 15.0%를 차지했으며 출생인구 성별비는 111.1이다. 2022년 전국 탁육서비스기구의 총수는 7만 5700개로 362만 4000개의 탁육자리를 제공했는데 전국 인구 1000명당 2.57개에 달했다. 농촌의 일부 출산계획 가정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출산계획 가정 특별지원 '두가지 제도'에 총 278억원을 투입했는데 전년 대비 37억 5천만원 증가했다.

부녀유아건강방면에서 2022년 우리 나라 임산

부의 임산전 검진률은 97.9%, 산후 방문률은 96.5%이다. 전년도에 비해 산전 검사률과 산후 방문률이 모두 증가했다. 2022년 전국 입원분만률은 99.94%로 기본적으로 전부 입원분만을 실현했다.

전국부녀유아건강 모니터링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6.8‰, 영아사망률은 4.9‰, 전국 임산부사망률은 15.7/10만으로 전부 정도부동하게 감소했다.

2022년 전국적으로 총 816만2000명의 임신계획부부에게 무료검진이 제공되였고 대상인구의 평균 적용률은 91.8%에 달했다. 선별된 모든 위험군은 맞품형 상담, 지도, 치료 및 진단 등 서비스를 받고 임신전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출생결함의 발생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10 월, 이런 새 규정들 우리생활에 영향줘



가짜 국영기업, 중앙기업 등 불법행위를 예방 및 제지하고 교외양성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력장애와 청력장애 인원이 표준어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10 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이 실시되여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량식품질안전관리방법> 10 월 1 일부터 시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정한 후의 <량식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23 년 제 4 호)를 공포했는데 202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다.

새로 수정한 <량식품질안전관리방법>에는 총칙, 량식품질안전위험모니터링, 량식품질안전관리, 량식품질안전검사, 량식품질안전사고 처리,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8 장, 총 50 조가 포함되였다. <방법>은 량식류통고리의 품질안전관리 규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량식품질안전 검사모니터링체계 건설을 강화했다. 국가량식물자비축국은 새 형세, 새 요구와 가일층 결부하여 량식품질안전보장체계 수립, 량식표준체계 지속적 최적화, 전 과정 량식품질안전관리통제 강화, 다차

원 검사모니티링체계 구축 등 4 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량식품질안전 감독관리 수준을 힘써 높임으로써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무한다.

교외양성 감독관리 강화

<교외양성 행정처벌 잠정방법>이 10 월 15 일부터 시행되는데 교외양성 감독관리를 강화하교 교외양성 행정처벌행위를 규범화했다. 그중에서 적용대상은 사회를 향해 만 3 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 중소학생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교외양성을 전개한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제멋대로 유상으로 학과류 은페적, 변형적 양성을 전개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으로의 전환(**转线上**)', '지하로의 전환(**转地下**)', '껍데기 바꾸기(**换马甲**)' 등 3 가지 은페적, 변형적 행위 및 최저보장(兜底)조항을 렬거하고 경고 내지 10 만원 이하 벌금의 법률책임을 규정했다. 중소학교 재직교원이 함부로 유상으로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더욱 엄히 처벌하는 등을 명확히 했다.

중앙 국가 기관 소속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관리 강화

<중앙 국가 기관 소속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관리방법(시행)>이 10 월 1 일부터 시행되여 중앙 국가 기관 소속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공무용차량제도개혁성과를 공고히 한다. <방법>은 보다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관리하는 요구를 부각시키고 공무용차량에 대해 대수통제, 배비표준, 배비경신절차, 사용과 처리관리, 감독검사 등 전 과정에 대해 규정을 내렸으며 찦차, 임대용차량 등 특수사항관리를 강화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변칙적으로 대수를 초과해 차량을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등 12 가지 '안된다(不得)'' 관리요구 등을 명확히 했다.

기업명칭 등록관리 새 규정 시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하여 출범한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실시방법>이 202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국가 중대전략정책과 관련된 문자를 사용하여 대중들이 국가 출자, 정부신용 등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을 취해 기업명칭을 자주적으로 신청하며', '동종업계에서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명칭(략칭, 상호 등 포함)과 비슷한 기업명칭을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했다. 기업명칭에 '중국', '중화', '중앙' 등 글자를 붙이면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규정했다.

시력, 청력 장애인 표준어수준시험 참가할 수 있어

교육부, 중국장애인련합회가 련합하여 제정한 <시력과 청력 장애인 표준어수준시험 관리방법(시행)>이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시력장애와 청력장애 인원은 자신의 조건 및 실제요구에 근거해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시험에 참가할 때에는 유효한 신분증명과 장애증명을 소지해야 하며 부근의 편리한 곳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성급 시험기구 또는 시험지점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이 실시되는 날부터 1 년내에 각지는 시험지점을 설치하여 시험을 전개하고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시험지점 건설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조제 등록관리방법> 강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하여 발표한 <영유아 조제분야제품 조제 등록관리방법>이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조제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방법>은 제품명칭중 동물성 원천 글자가 있는 경우 생유, 유분말, 유청분말 등 유단백질원천은 마땅히 전부 이 종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라벨, 설명서에는 '수입우유원천', '국외목장 유래', 생태목장', '수입원료', '원생태우유원천', '무오염유원' 등 모호한 정보를 사용하면 안되며 영아와 녀성의 형상과 '인유화(人乳化)', '모유화(母乳化)' 혹은 비슷한 술어의 표술을 사용하면 안된다. 변칙적 분리포장 금지와 8 가지 등록불가 정형을 명확히 했다.



국제소식

guojixiaoxi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

중국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이 보고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글 일부를 발표한다.

2023 년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지 20 년이 되는 해이다.

이 전쟁은 절대적안전을 추구하고 자기의 지정학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꾸민 음모이며 거짓말을 구실로 내대여 주권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침략전쟁으로서 이라크와 중동지역, 기타 세계의 많은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자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였고 그로 인한 커다란 후과를 산생시켰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벌리고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행위로서 일극세계를 추구하고 패권질서를 고수하는데서 핵심기둥으로 된다.

1776 년 독립한 때부터 미국은 무력 등에 의거하여 부단히 팽창하였다.

메히꼬와의 전쟁을 통해 령토를 배로 넓히고 에스빠냐와의 전쟁을 치른 후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대국으로 되면서 저들의 영향력을 서반구와 동아시아에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초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였다.

랭전종식으로 량극구도가 없어지고 일극패권이 형성되자 제마음대로 행동하고있다.

오늘도 미국은 저들의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매달리고있다.

240 여년의 력사에서 불과 20 년간 전쟁을 하지 않은 미국은 세계력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다.

불완전통계자료에 의하면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 년부터 2001 년까지 세계의 153 개 지역에서 248 차례의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것은 201 차례로서 약 81%를 차지한다.

미국의 군사적촉수는 전세계에 뻗어나갔다.

현재 미국은 적어도 세계의 80 개 나라에 약 750 개의 군사기지를 두고있으며 유엔의 190 여개 성원국가운데서 175 개 나라와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있다.

2001 년이래 미국은 세계의 80 여개 나라에서 《반테로》의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전개함으로써 38 만 7,000 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약 92 만 9,000 명의 사망자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약 3,800 만명이 류랑자나 피난민으로 되게 하였다.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고 고수하는 과정에 미국은 시종 《하늘이 정한 운명론》,《미국례외론》 등의 《제국사상》을 내들고 《해상권론》,《패권안정론》 등으로 저들의 패권행위를 비호하였다.

절대적인 권력과 협애한 리익의 부추김밑에 미국은 자주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과 통제에 매달리였다.

륙지와 바다,공중 나아가서 우주공간까지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른바 《미국치하에서의 평화》를 건설하려 하고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적통치하에서의 일극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군사패권적지위에 의거하여 패권주의정책과 행위를 강행추진함으로써 세계에 각종 재난과 피해를 들씌우고있다.

미국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해치고 주권에 관한 원칙을 유린하며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평화적발전을 저애함으로써 각국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고있으며 인류문명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사상적근원을 파헤치고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고 확대하는데 리용하고있는 수단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세계에 해독을 끼친 더러운 행적을 까밝힘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진면모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해준다.

미국력사에 이름을 남긴 전략사상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개괄한다면 《대양과 모든 해양을 통치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력사는 거울과도 같다.

폭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싹트고 자라나 형성되여온 력사는 바로 《제국사상》에 뿌리를 둔 미국의 한 부분이 북아메리카대륙의 동쪽에서 서쪽으로,륙지에서 바다로,지역에서 세계에로 팽창해온 력사이다.

19세기중엽의 미국－메히꼬전쟁으로부터 19세기말의 미국－에스빠냐전쟁까지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준비시기이다.

독립을 실현한 미국은 근 100년간에 걸친 《서쪽에로의 진출》을 개시하였다.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벌어진 미국－메히꼬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국경밖에서 벌린 대규모군사행동일뿐 아니라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한 전쟁이였다.

미국은 이 전쟁을 전후로 약 230만㎢의 땅을 타고앉음으로써 미국의 판도가 북아메리카대륙을 가로지르게 하였으며 태평양에로 진출할수 있는 출구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의 군사경제적팽창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19세기말 미국내에서는 군사력을 확장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해군현대화가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추진되였다.

1898년에 일어난 미국－에스빠냐전쟁은 미국력사에서 제국주의팽창의 첫 고조기로 간주되고있다.

북아메리카지역밖에서 벌린 첫 정복전쟁에서 미국은 에스빠냐를 이기고 꾸바와 뿌에르또 리꼬,필리핀,괌도에 대한 통제를 실현한 동시에 하와이를 병탄하였다.

이는 미국이 이때부터 무력에 의거하여 세계에로 팽창하는 패권의 길로 나아갔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당시 까리브해와 태평양에 모두 군사기지를 두었는데 이는 미국국경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경제적 및 정치적,군사적력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통치자들의 갈망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20세기의 상반기에 일어난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의 확립시기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현저히 강화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미국은 1916년에 국방법안과 해군법안을 채택하여 미륙군과 해군의 규모를 확대하였고 1917년에는 전쟁에 참가하고 대규모병력을 유럽에 배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세계의 중요력량으로 자라났는바 륙군병력은 1917년의 불과 13만명으로부터 400만명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기계화부대들이 조직되였으며 후방지원체계가 구축되였다.

이와 함께 해군무력도 부단히 강화하였는데 1922 년에 체결된 《해군군비제한에 관한 조약》을 통해 미해군의 규모를 영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일본을 제한하였다.

이는 영국이 지배적지위를 미국에 양보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세계정치에서의 유럽시대의 종말은 제 2 차 세계대전시기에 일어났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은 커다란 군사적잠재력을 보여주면서 태평양전선과 유럽전선에서 싸웠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유일하게 전쟁전보다 더욱 강대한 나라로 되였다.

1945 년 8 월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이 두차례의 공격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일정하게 앞당긴 동시에 핵무기의 막강한 힘을 충분히 과시하고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전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세계의 맹주로 될수 있는 초석 즉 력사에 류례없는 전쟁기계를 마련하였다.

전쟁이 끝날 당시 미국은 1,250 만명의 병력을 가지고있었으며 그중 750 만명은 해외에 주둔하고있었다.

또한 약 1,200 척의 대형군함을 보유한 해군과 장거리폭격기를 보유한 공군을 가지고있었으며 핵무기를 독점하고있었다.

미국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을 확립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유라시아대륙의 두 끝》이라는 전략적중심축을 통제하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영향력과 통제력은 전세계에로 확대되였다.

40 여년간에 달하는 랭전시기는 미국과 쏘련사이의 군사적패권쟁탈시기이다.

랭전기간 미국과 쏘련 그리고 그들을 위수로 한 나토와 와르샤와조약기구 2 대진영은 수많은 인적 및 물적자원을 투입하여 군비경쟁을 벌리는것과 함께 해외전쟁과 대리전쟁을 일으켰다.

1962 년 10 월에 있은 꾸바미싸일위기때 미쏘는 핵전쟁접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이것은 랭전기간 가장 위급한 시기로 간주되였다.

미국은 랭전기간 두차례의 대규모전쟁 즉 조선전쟁과 웰남전쟁에 개입하였는데 모두 《공산주의의 확장을 억제하는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

1950 년 미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 68 호문건(NSC－68)에서 《세계적인 군사적우세전략》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동원을 통해 《강대한 종합적실력》을 마련하는것은 미국의 랭전정책의 기본강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각종 계획에는 군비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다량의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의 기술적우세를 강화하고 전쟁 또는 급속한 실력강화로 쏘련을 억제하고 미국의 해외리익을 고수할데 대한 내용이 포함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고도과학기술에 기초한 재래식무력과 핵무력을 건설하고 방대한 규모의 쌍무적 및 다무적인 동맹체계와 전세계를 뒤덮는 군사기지를 구축할것을 추구하였다.

랭전의 종식으로 량극구도가 없어지면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전성기에 들어갔다.

1991 년 쏘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유일초대국이 되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은 군비지출에서 세계의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세계의 모든 해양뿐 아니라 륙해공군의 협동작전으로 해안까지도 통제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의 군사추종국과 예속국은 전체 유라시아대륙에 분포되여있다.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미국은 한켠으로는 군비지출증가와 군사력확장, 기지건설 등을 통해 세계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억제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켠으로는 부단한 군사행동으로 저들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의 존재필요성을 만들어내고있다.

랭전종식으로 동맹체계가 응집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1990 년대에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아시아태

평양지역에서의 쌍무동맹관계들을 유지함으로써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및 지정학적리익을 수호하였다.

2001 년 9.11 사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련이어 일으키고 리비아와 수리아 등지에서 군사행동을 벌렸다.

장기간의 세계《반테로》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미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미군의 해외무력사용에 대한 미국내의 의지도 다소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군사분야에서 뚜렷한 우세를 차지하고있으며 새 기술과 새로운 작전리념의 융합과 응용,동맹체계의 심화와 조정을 통해 21 세기에도 세계군사패권적지위를 유지하고있다.

현 중동사태는 미국의 더 큰 전략적패배를 예고한다

미국과 서방의 간섭으로 우크라이나사태가 장기화되여 세계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속에 중동지역에서 전례없는 규모의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번 사태발발의 근원이 팔레스티나령토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의 리익을 무참히 유린하여온 동맹국을 공공연히 비호두둔하며 가장 반동적인 대중동정책을 추구하여온 미국에 있다는것이 국제사회가 내린 결론이다.

미국이 《중동평화》를 제창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나라들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였지만 그것은 지역에서 이란을 비롯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포위억제하려는데 목적을 둔것이지 중동의 진정한 평화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것이다.

이로 하여 미국의 중재놀음은 지역에 긴장완화를 가져온것이 아니라 세력들사이의 극심한 대립과 모순을 초래하였으며 아랍위업의 핵이며 중동문제의 근본인 팔레스티나문제해결전망을 더욱 료원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산생시켰다.

이번에도 미국은 중동사태의 정치적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군사지원공약을 선택함으로써 지역의 군사적긴장도수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유럽에서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자결권과 령토완정을 떠들어대던 미국이 이스라엘에 의해 수십년간 팔레스티나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는 명백한 이중기준적태도를 보이고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중동평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파괴자이며 아랍의 동반자가 아니라 적수임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이번 중동사태를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기 위해 상투적인 반공화국흑색모략선전에 또다시 매여달리고 있는것이다.

미행정부의 어용언론단체들과 사이비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북조선제무기》들이 사용된것같다는 무근거한 자작랑설을 내돌리는가 하면 우리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틈을 리용하여 지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협박외교전략》을 구사할것이라는 엉터리여론을 퍼뜨리고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흉심은 명백하다.

저들의 그릇된 패권정책으로 산생된 중동사태의 책임을 제 3 자에게 뒤집어씌워 악의 제국에 쏠린 국제적비난의 초점을 회피하자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무력충돌을 산생시키고 그 책임을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돌리는
미국의 불법무도한 행태를 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패권적이고 이중기준적인 미국의 중동정책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가 아니라 감퇴를 초래하고있으며 미국의 대외정책전반을 뒤흔들어놓는 악재로 되고있다.

세계는 중동사태가 미국의 정보전의 실패,정세판단의 실패, 대외전략의 실패를 보여준다는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리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에 이어 미국에 거대한 전략적부담으로 등장한 중동사태는 동맹국 및 동반자국가들과의 관계강화로 《규칙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수립한다는 미국식패권전략의 한계점과 더욱 암담해지는 《유일초대국》의 앞날을 여실히 드러내보인 결정적계기로 되였다.

현 중동사태는 미국이 감수하여야 할 새로운 전략적패배의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이 국제적정의를 말살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들수록 그를 단호히 응징하려는 국제적대응의지는 더욱더 백배해질것이며 미국은 가장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국제문제평론가 리광성

중동지역의 열점-가자지대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는 서남아시아의 시나이반도 동북단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다. 면적은 360 여㎢이다. 령토의 3 분의 1 이 모래언덕이다.

중심지인 가자시는 지중해 동부해안의 이름난 상업항구도시로서 여러 나라사이의 중요한 무역거점으로 되여왔다. 때문에 력사적으로 이 지대는 치렬한 쟁탈대상이였다.

20 세기중반기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팔레스티나땅을 강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내쫓았다.

그후 팔레스티나인들은 가자지대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일부를 되찾고 이 두 지역에서 자치를 실시하여왔다.

하지만 령토팽창야망에 들뜬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은 군사적도발을 빈번하게 감행하면서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비법적인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에 계속 매달렸다.

가자지대는 이스라엘의 강점책동을 반대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들의 대중적투쟁의 발원지로, 중동지역의 열점으로 되여왔다.

지난 7 일 이 지대에서 일어난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대규모적인 무력충돌은 지금 날로 첨예한 상황에로 치닫고있다.

이번 사태는 팔레스티나령토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야만적인 봉쇄와 끊임없는 무장공격, 유태인정착촌확장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그를 비호두둔하는 미국의 범죄행위의 결과이라는것이 국제사회의 평이다.

온갖 사회악을 초래하는 부르죠아개인주의

사기와 협잡, 살인과 강탈, 마약범죄와 인신매매, 극도의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의, 인간증오사상 등은 자본주의사회가 필연코 산생시킬수밖에 없는 더러운 사회악들이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만연되고있는 각종 사회악은 앞날이 없는 이 사회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르죠아개인주의가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온갖 모순과 사회악을 낳는다.》

부르죠아개인주의는 사람들을 저 하나만의 리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극도의 리기적인 존재로 만든다. 사생결단으로 남을 디디고 올라서기 위해 골몰하고 전심전력하게 한다.

재부를 늘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남이 싫어하든말든, 남에게 해가 되든말든, 남이 고통을 당하든말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하고싶은대로 행동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치렬하게 벌어지는 생존경쟁은 서로 반목질시하고 착취하며 억압하는 비인간적인 관계를 산생시키며 사람들을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무슨짓도 서슴지 않는 불한당으로 만들고있다.

결과 과거의 착취사회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끔찍한 사회악들이 범람하고있다. 황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온갖 비렬한 권모술수와 사기협잡, 시기질투와 모해, 살인과 강탈 등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그칠새없다. 《나》라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배치될 때에는 자식이든 부모이든 눈 한번 깜빡 안하고 죽이는 말세기적풍조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미 례사로운것으로 되여버렸다.

일본에서는 자기를 낳아키워준 부모를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며 목숨까지 앗아가는 짐승도 낯을 붉힐 끔찍한 살인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형편이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목을 졸라죽이고 어머니의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태워죽이며 돈을 주지 않는다고 칼로 찔러죽이는것을 비롯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살인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혈육들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판이니 남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총기류범죄를 비롯한 각종 살인범죄가 성행하고있다. 미국은 그 본산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개인들이 보유하고있는 8 억 5 700 만정의 총기류가운데서 미국인들이 소유하고있는것은 3 억 9 300 만정으로서 약 46%를 차지하고있다.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총기류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곳은 오직 미국뿐이다.

미국에서 총격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최근년간 신형코



로나비루스감염증에 대한 공포증으로 하여 수십만명이나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나갔다고 하는 뉴욕과 시카고, 로스안젤스 등 미국의 대도시들에서는 오히려 총기류범죄와 살인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청소년들이 총격사건으로 죽을 가능성은 30 여개의 발전된 나라들에서의 가능성을 합한것보다 15 배 더 높다.

세계인구의 5%도 안되는 미국에 세계수감자수의 4 분의 1 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인들까지도 《정말 부럽지 않은 기록》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한 TV 회사에서 전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내보내는 교육편집물은 청소년들속에서 만연되고있는 색정과 마약사용, 도박을 비롯한 비도덕적이고 범죄적인 사실자료들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들의 특성이라고 선전하고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사회악은 그 어떤 처방도 없는 자본주의의 불치의 병이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실업위기, 물위기, 식량위기가 우심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절망의 아우성이 울려나오고있지만 가장 큰 공포와 위구심을 자아내는것은 바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인간위기》이다.

자본주의사회야말로 정신과 육체를 좀먹는 각종 수단이 범람하여 인간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드는 사회이며 온갖 사회악이 판을 쳐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속에 허덕이게 하는 사람 못살 세상이다. 온갖 모순과 사회악의 탁류속에 푹 잠긴 자본주의사회는 멸망의 낭떠러지로 줄달음치고있다.

세계정당들의 제 27 차 토론회 메히꼬에서 진행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 27 차 토론회가 5 일부터 7 일까지의 기간에 메히꼬에서 진행되였다.

메히꼬의 여러 정당 지도자들,국회의원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중국,꾸바,웰남,니까라과,베네수엘라를 비롯한 40 여개 나라의 60 여개 정당 대표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전 온두라스대통령,싼 빠울로연단 총서기와 메히꼬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등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전랑독에 이어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민주주의적사회개혁을 다그쳐나가는 나라들의 사업성과와 경험,이를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치렬한 투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 모든 혁명적이고 진보적이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제자주력량들이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해나갈것을 그들은 호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과 군사적도발책동을 단호

히 짓부시며 조선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결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의 생존권, 발전권, 안전환경을 위협하고 지역과 전세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전쟁연습과 핵타격수단들의 빈번한 반입,반인륜적인 제재봉쇄책동을 규탄배격하였으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자주와 정의,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모든 진보적인 정당,단체들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하기 위한 련대성운동을 광범히 전개할것을 호소하였다.(끝)

2030년 월드컵 3대륙 6개국 공동개최



국제축구련맹은 10 월 4 일 총부에서 리사회 영상회의를 소집하여 2030 년 남자축구 월드컵은 3 개 대륙의 6 개 나라에서 련합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선포했다. 모로꼬, 뽀르뚜갈, 스페인이 주요개최국이고 남아메리카주의 우르과이, 아르헨띠나와 파라과이에서 개막단계의 3 차례 경기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또 각 대륙의 축구련맹 순환원칙과 최적의 개최조건을 확보한다는 원칙에 따라 2030 년과 2034 년 두차례 월드컵의 유치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국제축구련맹은 아시아축구련맹과 대양주축구련맹의 국제축구련맹 회원협회를 초청하여 2034 년 월드컵을 유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저녁 사우디아라비아는 2034 년 월드컵을 독자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선포했다.

국제축구련맹은 국제축구련맹 리사회는 스페인, 뽀르뚜갈, 모로꼬 3 개국이 2030 년 월드컵의 유일한 공동개최국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3 개 나라가 다음 유치절차를 거치면 2024 년 국제축구련맹총회에서 월드컵개최권을 공식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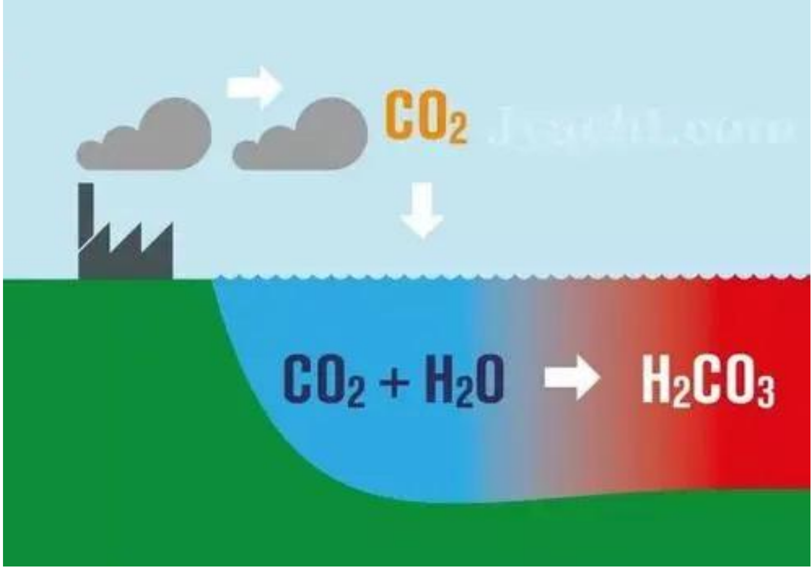
동시에 2030 년은 제 1 회 월드컵 개최 100 주년을 맞이하기에 국제축구련맹은 1930 년 월드컵 개최지 우라과이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우라과이, 아르헨띠나, 파라과이에서 각각 한차례의 2030 년 월드컵 개막단계의 경기를 열기로 했다. 국제축구련맹은 모로꼬, 뽀르뚜갈, 스페인은 2030 년 월드컵 본선에 자동으로 진출한다고 밝혔지만 남아메리카주 3 개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축구련맹 주석 인판티노는 “2030 년 월드컵은 3 개 대륙의 6 개 나라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며 아르헨띠나, 모로꼬, 파라과이, 뽀르뚜갈, 스페인과 우라과이는 전세계와 함께 월드컵 100 주년을 축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 국제축구련맹 리사회는 4 일 2025 년 제 1 회 5 인제 녀자월드컵을 2025 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바다의 산성화

과학자들이 고대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수백건의 자료를 연구한데 기초하여 현재 바다물이 ３억년래에 가장 빠른 속도로 산성화되고있다고 밝혔다.그 속도는 ５ ６００만년전 대량의 온실가스가 방출되던 시기보다도 더 빠르다고 한다.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로 무어진 공동연구집단은 ３억년동안의 자연지리상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기후변화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들은 지난 ３억년중에 ５ ６００만년전의 지구가 현 상황과 비슷하였다고 주장하였다.당시 화산폭발로 인한 열파가 ５ ０００년동안 지속되였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중 약 ３분의 １이 바다에 흡수된다.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바다가 １년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량은 ８０억 ｔ 정도이다.이것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것으로 하여 바다물의 산성화가 촉진되고 바다의 생태환경이 위협당하고있다.

연구사들이 근 ３０년동안 해양연구과정에 수집한 바다물의 이산화탄소수치를 분석한데 의하면 바다물속의 이산화탄소농도가 ６５０ppm 이상이면 그 해역의 물고기들이 고탄산가스혈증에 걸릴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방향감각을 잃게 되며 지어 천적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대기중의 이산화탄소함량이 계속 높아지면 ２１００년에 가서는 세계바다겉층에서 사는 생물의 반수이상이 고탄산가스혈증에 걸릴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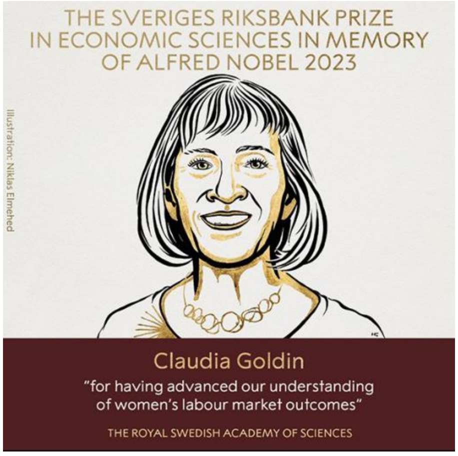
또한 바다물이 빠른 속도로 산성화되면 산호초가 침식되고 섭조개와 굴 등의 조가비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며 물고기의 먹이인 작은 바다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이것은 세계어업과 전반적인 바다생태계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바다물의 산성화는 식품안전에도 엄중한 피해를 준다.

과학자들은 보라섭과 피조개, 대합조개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여 바다물의 산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금속인 카드미움이 높은 농도로 축적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사들은 인류의 보물고인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 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9 일, '로동시장 성별격차 배후의 핵심동인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해 2023 년 노벨경제학상을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교수 클로디아 골딘에게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수세기에 걸친 녀성 소득과 로동시장 참여상황을 제공한 것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이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그녀의 연구는 이런 변화 배후의 추동력을 제시했고 성별격차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주요원인을 지적했다.

선정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서는 클로디아 골딘의 연구는 "우리가 녀성 로동시장 결과에 대한 리해를 증진시켰다."라고 밝혔다.

선정위원회 주석인 야코브 스벤손은 "녀성의 로동시장에서의 역할을 료해하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클로디아 골딘의 획기적인 연구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장벽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였다."라고 밝혔다.

클로디아 골딘은 1946 년 미국 뉴욕에서 태여났다. 1972 년 미국 알리노이주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이다. /인민넷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등장, 기네스기록 등재



미국 한 남성이 키운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기네스세계기록에 등재되였는데 평균 맵기가 269.3 만단위로 이전에 가장 매운 고추 '캐롤라이나 리퍼'의 1.6 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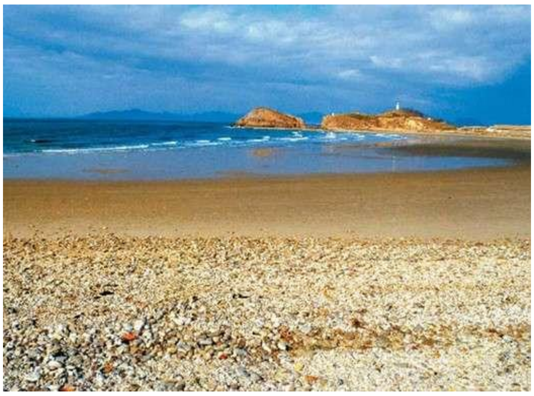
기네스세계기록 사이트의 16 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기록을 경신한 고추의 명칭은 '페퍼 X'로 10 년전 기네스세계기록 인증을 받은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추재배전문가 에드 커리가 키운 것이라고 한다.

현재 공인하는 맵기를 측정하는 스코빌지수는 고추즙물을 희석하여 매운 맛을 느낄 수 없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 례를 들어 100 만단위는 고추즙물을 100 만배 희석해야만 매운 맛을 못 느끼는 것과 같다.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의 평균 맵기는 약 164 만단위이다. 이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주 맵다고 하는 메히꼬 청고추는 3000 내지 8000 단위라고 한다.

미국 AP 통신은 커리 본인조차 '페퍼 X'를 먹고 가슴에 열이 나고 복통을 느꼈다고 한다. 매체는 그가 "이런 고통은 정말 두려웠다…나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지금까지 5 명이 이 고추를 통째로 먹었다고 말했다.

커리는 10 여년 동안 '페퍼 X'를 육성했다. 그는 매년 100 여차례 교잡실험을 수행하여 '캐롤라이나 리퍼'를 리용해 그가 말한 것처럼 '친구가 미시건주에서 가져온 엄청 매운 고추'로 교잡해 '페퍼 X'를 키워냈다고 한다.





조선서해의 절경-몽금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워왔습니다.》

공화국의 황해남도 룡연군의 바다가에 자리잡고있는 몽금포는 흰 모래불과 푸른 소나무, 붉게 핀 해당화 등이 하나로 어울려 마치도 비단우에 수를 놓은듯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서해명승지이다.

그 옛날 전라도지방의 어느 한사람이 이곳에서 살기 위해 찾아왔다가 오랜 세월 물에 씻기워 곱게 다듬어진 조약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것을 보고 금덩이우에서 잠을 자는 꿈을 꾸었다는데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였다고 한다.

몽금포앞바다에는 우리 나라에서 보기 드문 바다생물들과 새우, 게, 조개류들이 많이 살고있다. 또한 해안모래언덕을 이루고있는 모래퇴적물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석영모래로 알려져있다.

몽금포명승지풍치의 특징은 바다가의 경치와 함께 기암풍치가 유명한것이다.

포구 1km 안팎의 푸른 바다에 크고작은 섬들이 있고 설레이는 바다의 물결에 실려 흥겹게 춤추듯 하는 고기배들, 멀리 수평선우를 날아예는 갈매기와 바다새들의 모습은 한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다.

몽금포의 기암풍치에서 특색을 이루면서도 손꼽히는것은 몽금포코끼리바위이다.

바다물의 깎임작용과 풍화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이 바위는 마치도 그 모양이 코끼리가 긴 코를 바다물에 드리우고 물을 마시고있는것 같다고 하여 코끼리바위라고 불리운다.

몽금포에는 또한 약 24km 의 구간에 13km 의 폭으로 펼쳐진 흰색의 보드라운 모래불우에 20 여개의 모래산들이 있는 몽금포모래언덕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몽금포는 우리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조선의 명승지로 빛을 뿌리고있다.





올림픽운동의 시원

인류문화의 귀중한 창조물의 하나인 현대올림픽경기대회는 고대올림픽경기대회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고대올림픽운동의 시원과 그 부활과정에 대한 견해는 현대올림픽운동을 인식하는 첫 공정으로 된다고 볼수 있다.

고대올림픽경기대회는 B.C. 776년부터 시작되여 A.D. 393년까지 근 1200년동안이나 진행되였다.

고대그리스의 제우스신전근처의 올림피아에서 4년에 한차례씩 제우스신을 위하여 마련된 이 체육경기대회에서는 달리기, 너비뛰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레스링 등의 원시적인 체육종목들의 경기가 진행되였다.

이 경기대회는 아테네, 스파르타, 마께도니아 등 도시국가들사이의 끊임없는 전쟁속에서도 천년이상이나 계속 되였다.

그러다가 그리스를 정복하였던 로마황제 헤오도 시우스가 그리스도교정신에 어긋나는 이교도적인 의식이라고 올림픽경기를 페지시켰으며 그후 현대에 와서 그것이 다시 부활되기까지는 약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

고대그리스시기에는 올림피아, 피치아, 네메아, 이스트미아에서 4대경기행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고 성대하게 진행하던 경기가 올림피아의 경기였다고 한다.

B.C. 776년에 그리스의 여러 부락들이 모여 올림피아의 제우스신전문앞에서 첫번째 경기를 진행하였다.

그 첫번째 축제경기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경기는 오늘날 현대올림픽경기대회의 올림픽홰불의식으로 되였다.

당시에 진행된 경기때에는 먼저 홰불을 손에 든 제사자가 제단앞에 서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제단에서 약 200m되는 곳에서 대기하였다.

심판원이 출발신호를 하면 선수들은 제단으로 달리였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제사자의 홰불을 넘겨받은 선수가 우승자로 되였다.

우승자로 된 선수는 제단에 성스러운 불을 다는 영광을 지니였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한 올림피아경기는 4년을 주기로 A.D. 339년까지 수백차례나 빠짐없이 진행되였다.

현대올림픽경기대회의 탄생

고대올림픽경기가 1 500만년에 다시 부활되게 된것은 문예부흥기에 조성되였던 사회력사적환경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세계여러 나라들에서 체육활동이 활발해지고 여러 종목들의 경기대회들이 진행되는것과 함께 나라들사이의 체육교류가 확대되여감에 따라 국제적인 체육기구를 내오고 체육경기를 조직화할 사회적요구가 제기된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요구를 제때에 포착한 꾸벨뗑은 1892년 11월 25일 빠리 소르본느대학에서 열린 프랑스경기련맹창립 2

돈기념회의에서 처음으로 올림픽경기의 부활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평화와 친선을 목적으로 한 그의 제안은 당시 식민지쟁탈에 피눈이 되여있던 제국주의자들의 랭대를 받았다.

하지만 꾸벨뗑은 신심을 잃지 않고 1894년 빠리만국박람회에 즈음하여 《아마츄어문제에 대한 연구》라는 의제를 가지고 국제체육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준비를 갖추었다.

1894년 6월 16일부터 빠리의 소르본느대학에서 프랑스, 영국, 로씨야, 그리스, 벨지끄, 이딸리야, 에스빠냐 등 12개 나라의 47개 단체대표 79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올림픽경기대회를 4년에 1차씩 각국의 대도시들에서 진행하며 경기종목은 현대종목으로 한다는것과 경기대회를 조직하고 관할하기 위한 15명으로 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위원회가 올림픽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최대의 권한을 행사한다는것 등을 결정하였다.

올림픽부활운동이 드디여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됨으로써 꾸벨뗑은 현대올림픽운동의 창시에 력사적기여를 한 인물로, 《현대올림픽운동의 아버지》로 이름을 남기게 되였다.

1896년 4월 6일 고대올림픽운동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는 제1차 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막되였다.

첫 올림픽경기대회때 8개 종목에 311명의 참가선수로 첫 걸음을 뗀 현대올림픽경기대회는 세기와 세기를 넘어온 오늘날 여름철 및 겨울철 경기무대로 《세간》이 나누어졌다.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는 28개 종목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1만명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300개이상의 금메달을 놓고 벌리는 세계최대규모의 인류대축전으로 발전하였다.





민속명절-추석

추석은 음력 8월 15일에 쇠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명절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은 이미 삼국시기에 추석을 큰 명절로 쇠군 하였다.

추석을 맞으며 부녀자들이 편을 나누어 한달동안 길쌈경쟁을 하여 음력 8월 15일에 성적을 총화하고 진편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다.

추석날의 중요한 행사는 조상의 묘를 찾는것이였다. 햇곡식으로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상의 묘를 찾아 풀도 베고 장마피해를 입은 무덤을 손질한 다음 제사를 지냈다.

추석날에 선조들의 묘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여 례의를 표시하며 하루를 뜻깊게 지내는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은 예로부터 례절이 밝고 의리가 깊은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도덕적풍모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추석에는 특색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민속놀이를 하면서 즐기였다.

추석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과 노치, 밤단자, 햇쌀로 빚어만든 신도주 등이 있었다.

이날의 민속놀이로는 녀성들의 그네뛰기, 남성들의 활쏘기, 씨름이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지방에 따라 바줄당기기, 소놀이, 거부기놀이, 길쌈놀이도 하였다.

추석날 저녁에는 달구경이 이채를 띠였다.

높은 산에 오르거나 집마당에 멍석을 펴고 앉아 유난히도 밝은 은백색의 둥근달을 바라보며 제나름대로 조용히 마음속소원을 외우고 소박한 꿈이 담긴 시와 노래로 즐기던 우리 인민의 달구경풍습에는 다정다감하고 정서가 깊은 우리 민족의 내면세계가 잘 반영되여있다.

이날 사람들은 달의 밝음도를 보고 그해의 농사작황을 가늠해보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추석을 즐겁게 쇠고 가을걷이에 들어갔다.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활짝 꽃피워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민속명절 추석을 쇠는 풍습은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정서에 맞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추석명절풍습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올해의 추석은 9월 29일이다.



된장생산원료로 좋은 밀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밀가공음식들의 가지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는 속에 이전에는 된장생산에서 보조원료로 쓰이던 밀이 주원료로 리용되고있다.

된장생산원료들가운데서 밀은 콩다음으로 단백질함량이 높다. 특히 단백질을 이루고있는 아미노산들중에서 글루타민산함량이 높다.

그런것으로 하여 밀된장은 감칠맛이 있고 단맛이 세며 붉은 밤색의 고운 색갈을 띤다.

또한 밀단백질은 발효숙성공정에서 분해률도 높다.

이와 같이 밀은 된장생산원료로서 여러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있다.

밀된장을 맛있게 만들자면 밀을 분쇄하여 쓰는것이 좋다.

밀알은 두터운 껍질로 둘러싸여있으므로 분쇄하지 않고 된장을 만들면 밀껍질이 남아있어 겉보기와 씹는감이 좋지 않다.

밀된장의 질을 높이는데서 물기를 잘 맞추는것도 중요하다. 밀된장은 농마질함량이 높기때문에 물기함량이 높으면 묽어지는 현상이 있다.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된장의 물기함량을 콩된장보다 낮추는것이 좋다.



조금만 상한 과일, 먹어도 될가?

과일은 누구나 좋아하기에 한꺼번에 많이 사서 천천히 쟁여두고 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과일은 조금 썩거나 일부는 작은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버리면 아깝고 또 '음식을 랑비하면 안된다'는 원칙에 립각하여 상한 부분을 깎아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먹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될가?

보통 상한 과일은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번째는 랭장고에 두어 얼거나 운송중에 약간 부딪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먹을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하는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위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 두번째는 과일을 너

무 오래 두어 약간 곰팡이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과일은 곰팡이가 핀 부위를 깎더라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곰팡이가 핀 과일을 먹으면 대체 어떤 나쁜 점이 있을가? 과일이 상하면 종종 많은 진균독이 생성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사과, 배, 복숭아를 례로 들면, 이러한 종류의 과일은 부패한 후 '파툴린(展青霉素)'이라는 독소를 생성한다. 이는 급성 및 만성 식중독을 일으키고 메스꺼움과 복통을 느끼게 하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소이다.

감숙농업대학은 썩은 사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과가 썩은 면적이 클수록 파툴린함량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독소가 주변으로 퍼지기도 하는데 거리가 멀수록 함량이 낮아진다. 이 독소는 곰팡이가 핀 곳뿐만 아니라 과일 전체에 퍼진다.

따라서 과일은 썩은 후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음식랑비'를 원하지 않으면 매번 적게 사서 신선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치매예방, 가장 간단한 방법!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예측에 따르면 치매는 21세기의 최대의 킬러가 될 것인바 2050년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1.53억명이 치매증을 앓을 것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치매를 완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지만 건강한 음식, 적극적인 활동, 금연, 사회적 련계 유지와 같은 일부 생활방식과 체중을 잘 관리하여 치매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치매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가?

★사회구역활동에 참가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야 한다.

★집식구, 친구 혹은 이웃과 자주 교류하면서 생활경험이나 감수를 나누고 자식들은 최대한 시간을 들여 로인과 수다를 떨어 그의 외로운 심리를 달래주어야 한다.

★자원봉사사업에 참여하여 타인을 위해 도움을 주고 사랑을 기여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한담을 하고 교류를 하면 사회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클럽이나 조직에 가입하여 단체활동에 참여하여 타인과 흥취와 즐거움을 공유한다.

★단체운동이나 야외활동에 참가하여 타인과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함께 체험하고 향유한다.

★영상통화 또는 소셜미디어 등 기술수단을 리용해 원격으로 친지들과 련락을 유지한다.

★양성수업 또는 학습반에 참가하여 뜻이 맞는 사람들을 사귀고 함께 새로운 지식을 학습한다.

대뇌는 '사용하면 진보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고 두터운 관계를 맺으며 대뇌를 위해 풍부한 인지적 자극을 제공한다.

총적으로 말해 수다를 떨기 좋아하는 것은 즐거운 활동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치매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중시하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 인민넷-조문판





사과씨에 독이 있다? 이런 과일의 씨 씹지 말 것!

사과를 먹을 때 껍질과 씨를 다 먹는가? 일전에 매체는 한 아기가 옹근 사과에서 짜낸 주스를 마신 후 복통과 구토증상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과씨가 독이 있다'는 추측을 자아냈다. 사실일가?

사과씨에는 독이 있을가?

사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과일중 하나로 작고 검은 씨는 쓴맛이 있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사과는 전체를 다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항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시안화 배당체라고도 함)이라는 식물화합물(시안화 배당체)이 함유되여있는데 아몬드배당체는 종자 화학적 방어의 일부로 그 자체는 무해하지만 온전했던 종자가 파괴되거나 씹히거나 소화되면 아몬드배당체가 시안화수소로 분해된다. 시인화수소는 력사적으로 독약으로 사용되였는데 이 물질은 세포의 산소공급을 방해하여 충분한 복용량이면 몇분내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량의 사과씨를 먹으면 중독을 일으킬가?

일반성인은 최소 150개 이상의 사과씨를 섭취해야 중독된다. 품종에 따라 사과씨 1g의 아미그달린함량은 1~4mg로 부동하며 잘게 부수거나 씹은 사과씨1g은 0.06~0.24mg의 시안화물을 방출할 수 있다. 따라서 150알 이상의 사과씨를 먹어야 치명적일 수 있다. 사과 한알에 사과씨가 5~8알밖에 없기에 20여개 사과의 씨를 모두 씹어 먹어야 중독될 수 있다. 사과씨의 정확한 치사량은 체중, 개별 내성 및 사과 품종에 따라 크게 부동하다.

또 어떤 과일은 씨를 씹지 말아야 할가?

복숭아, 체리, 모래, 살구, 배, 자두, 비파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의 씨에는 사과씨와 마찬가지로 아미그달린(시아노신)이 포함되여있으므로 섭취하는 동안 씨를 될수록 씹지 말아야 한다.

과일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인체에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풍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 '위험한 소문' 때문에 일부 과일을 멀리하지 말아야 한다. 섭취하는 동안 이러한 유해한 과일씨를 실수로 먹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 인민넷













어미개



나무에 오른 고양이

고양이와 강아지그림으로 유명해진 리암 (1499 ~ ?)

리암은 리조회화사에서 걸작으로 불리우는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한 사람이였다.
리암은 1499년에 서울에서 태여났고 자는 정중이고 림영대군 리구의 증손으로서 두성령이란 작호를 받았다.

당시는 유교성리학이 성행하면서 사회적으로 미술을 천한것으로 보았지만 리암은 여기에 구애되지 안하고 주위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현상들을 화폭에 담았다.
특히 리암은 령모화(짐승그림)들을 그리기 좋아했다. 채색으로 그린 고양기와 강아지그림을 잘그리는것이 그의 특기였다.

리암의 화풍의 특징은 또한 형상이 부드럽고 선명한데서 표현되고있다.

한마디로 리암의 기법상특성은 묘사대상에 대한 치밀한 선묘수법과 먹색의 농담변화에 따르는 음영표현으로 대상의 성격을 돋구고 조선사람의 감정에 맞는 형상을 창조하였다는데 있다.

이처럼 리암은 우리 인민이 즐기고 사랑하는 형상수번으로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줌으로써 지금도 친근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화가들중의 한사람으로 되고있다.

몰골기법

테두리선을 긋지 않고 단붓질로 그리는 조선화기법의 하나이다.
한두번의 붓질로 묘사대상의 형태적특징과 색감, 질감, 립체감, 운동감등을 동시에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단붓질법이라고도 한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
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